

# 농업에 대한 국민의식과 사회적 인식 제고방안

김 종 숙 책임연구원  
민 상 기 책임연구원

| 연구 담당 자 | 담당 분야                     |
|---------|---------------------------|
| 김 종 숙   | 제1~4장, 제6장, 제7장,<br>부록 집필 |
| 민 상 기   | 제5장, 제6장 집필               |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1
2. 연구범위와 주요 자료 ..... 2

## **제 2 장 농업의 의미체계와 가치에 대한 논의**

1. 농업의 역할과 가치 ..... 6
2. 농업의 가치 추구를 위한 기본시각 ..... 15
3.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접근 방법 ..... 22

## **제 3 장 농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

1. 문명의 전환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 25
2. 우리 나라 농업의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 28
3. 21세기를 향한 농업의 가치 추구 ..... 32

## **제 4 장 농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도시민의 의식**

1. 조사목적과 조사방법 ..... 38
2. 조사응답자의 특성 ..... 39
3. 조사 분석 결과 ..... 40
4. 조사결과 요약 및 함의 ..... 59

## **제 5 장 국민학교 교과서의 농업에 관한 기술내용 분석**

1. 교과서 분석의 의의와 분석 내용 ..... 61

|                                     |     |
|-------------------------------------|-----|
| 2. 농업관련 내용의 취급 비중과 연도별 추이 .....     | 62  |
| 3. 농업관련 내용의 연도별 주제 .....            | 63  |
| 4. 농업에 대한 취급빈도와 기술 내용 .....         | 66  |
| 5. 농업의 주요 영역별 상황 설명과 가치 부여 .....    | 69  |
| 6. 농업관련 기술 내용의 한계와 개선 .....         | 73  |
| 제 6 장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
| 1. 농업의 다면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 ..... | 75  |
| 2.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방안 .....         | 77  |
| 제 7 장 요약 및 결론 .....                 | 82  |
| 부 록 1 우리 나라 농업관 .....               | 87  |
| 부 록 2 일본의 농업관 .....                 | 97  |
| 부 록 3 미국의 농업관 .....                 | 105 |

## 표 목 차

### 제 2 장

|                           |    |
|---------------------------|----|
| 표 2-1 농업에 대한 양분된 시각 ..... | 18 |
|---------------------------|----|

### 제 3 장

|                                         |    |
|-----------------------------------------|----|
| 표 3-1 문명의 전환에 따른 농업의 가치관 변화 .....       | 26 |
| 표 3-2 우리 나라 경제발전 과정에 따른 농업의 역할 변화 ..... | 31 |
| 표 3-3 농업·농촌의 역할 .....                   | 33 |

### 제 4 장

|                                                    |    |
|----------------------------------------------------|----|
| 표 4-1 조사응답자 연령별 성별 구성 .....                        | 39 |
| 표 4-2 조사응답자 가구소득별 구성 .....                         | 39 |
| 표 4-3 조사응답자 교육수준별 구성 .....                         | 40 |
| 표 4-4 조사응답자 직업별 구성 .....                           | 40 |
| 표 4-5 「농자천하지대본」으로 표현되는 농업의 중요성 .....               | 41 |
| 표 4-6 도시민이 생각하는 산업의 중요도 순위 .....                   | 42 |
| 표 4-7 외국 농산물이 국내산 농산물보다 가격이 쌀 경우 수입<br>희망 여부 ..... | 43 |
| 표 4-8 우리 나라 식량 자급도에 대한 인식 .....                    | 44 |
| 표 4-9 국내산 농산물과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품목별<br>구매의사 .....       | 45 |
| 표 4-10 국가 경제발전에 대한 농업의 기여도에 대한 인식 .....            | 46 |
| 표 4-11 농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               | 47 |

|                                       |    |
|---------------------------------------|----|
| 표 4-12 농업의 주요 역할 변화 .....             | 49 |
| 표 4-13 도시민의 농업 관련 정보 입수 경로 .....      | 49 |
| 표 4-14 도시민이 보는 매스컴의 농업문제에 대한 태도 ..... | 50 |
| 표 4-15 도시민이 생각하는 농업정책의 우선순위 .....     | 51 |
| 표 4-16 농어촌특별세 신설에 대한 도시민의 태도 .....    | 52 |
| 표 4-17 농어촌특별세 신설을 찬성하는 이유 .....       | 52 |
| 표 4-18 도시민이 느끼는 직업으로서 농업에 대한 매력 ..... | 53 |
| 표 4-19 도시민이 인식하는 농업소득 수준 .....        | 54 |
| 표 4-20 도시민이 인식하는 농업노동 강도 .....        | 54 |
| 표 4-21 직업으로서 농업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 .....     | 55 |
| 표 4-22 직업으로서 농업에 매력을 못 느끼는 이유 .....   | 55 |
| 표 4-23 자녀의 직업으로서 농업에 대한 태도 .....      | 56 |
| 표 4-24 도시민이 생각하는 우리 나라 농업의 장래성 .....  | 56 |
| 표 4-25 도시민이 기대하는 바람직한 농촌상 .....       | 57 |
| 표 4-26 우리 나라 농민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 .....     | 58 |
| 표 4-27 도시민이 농촌에서 생활하고 싶은 이유 .....     | 59 |

## 제 5 장

|                                        |    |
|----------------------------------------|----|
| 표 5- 1 연도별 전체 장·절수와 농업관련 장·절수 비교 ..... | 63 |
| 표 5- 2 연도별 농업관련 장·절의 주제명 .....         | 65 |
| 표 5- 3 연도별 교과서에서의 농업기술빈도 .....         | 67 |
| 표 5- 4 연도별 농업에 대한 주요 부문별 가치 부여 .....   | 70 |

## 그림 목 차

### 제 2 장

|        |                        |    |
|--------|------------------------|----|
| 그림 2-1 | 농업의 철학적 접근 체계 .....    | 10 |
| 그림 2-2 | 농업의 의미체계 .....         | 12 |
| 그림 2-3 | 공업·도시와 농업·농촌의 관계 ..... | 16 |
| 그림 2-4 | 농업에 대한 국민의식 형성과정 ..... | 24 |

### 제 3 장

|        |                      |    |
|--------|----------------------|----|
| 그림 3-1 | 농업의 지역복합경제화 조직 ..... | 36 |
|--------|----------------------|----|

빈

면

# 제 1 장

## 서 론

###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토지를 사용하여 동·식물을 생육하고 그 산물을 제조·가공하는 농업은 인류생존에 필수적인 먹거리를 생산·공급하는 산업으로서 또 이를 생업수단으로 하는 농민들에겐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직업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은 농촌사회의 형성·유지와 농촌문화 창달의 물적 기반이 되며, 국토의 이용·보전과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하는 등 일반국민의 삶의 질 향유를 위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의 이와같은 가치는 지난 30여년간에 걸친 산업화과정에서 농업축소시대를 겪음으로써 그 의미가 퇴색되어, 농업·농민·농촌은 낙후산업으로 발전성이 없고, 또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사람들이 종사하는 직종과 삶의 공간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우기 UR협상타결로 농민자신들조차 농업에 대한 장래의 불확실성으로 위기감이 조성되는 가운데, 금후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혼재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가치혼란이 일어

나고 있다.

농업의 주체인 농민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농업에 대한 생산의욕을 잃고 농촌을 떠나거나 신규투자를 기피하게 되면 농업생산기반은 무너지고 농촌은 공동화되거나 도시화하여 농업이 수행해 왔던 기능을 더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막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이 유지되어야 한다거나 축소될 수 있다거나 하는 논의는 본질적으로는 농업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에 귀착될 수 있다. 즉, 국민의 대부분이 농업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농업유지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힘을 모으게 될 것이며, 만약 농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여 농업투자가 축소된다면 농업 경쟁력은 더욱 악화되어 최악에는 농업이 완전히 기반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농업에 대한 가치혼란은 농업·농민·농촌발전을 위한 정책도출의 합리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원활한 정책수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농민·농촌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농업에 내재된 본질적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바탕을 둔 가치정립과 이를 위한 농업관의 확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농업의 본질적 가치를 규명하고 국민들의 농업에 관한 제반의식을 조사하여 농업에 대한 가치의 평가와 기대하는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농업에 대한 부정적, 소극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유지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새로운 농업관 형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범위와 주요 자료

### 1.1. 연구범위

이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의 본원적 가치와 역할 기능에 대해 개진된 제 이론과 견해의 정리를 통해서 농업의 본원적 가치내용을 밝힌 후, 농업의 내재적 가치가 사회유형에 따라 표출되는 내용과 형태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농업의 가치가 발현될 수 있는 21세기 농업의 발전형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로는 우리나라 도시민의 농업관과 농업에 대한 기대역할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세째, 국민학교 교과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업에 관한 내용을 살펴 보고 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각된 의식을 함양키 위한 교과내용의 기술 방향을 제시하였다.

네째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사회의 새로운 농업관 정립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다섯째로는 농업의 가치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농업지도자 및 철학자의 농업에 대한 가치인식과 일본, 미국의 농업관을 정리 하였다.

## 1.2. 분석방법 및 자료

이 연구의 기본 접근방법은 오늘날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저조, 부정적인 시각이 생성되는 원인과 그 매카니즘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농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을 통해서 농의 본질을 가치론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국민의식 속에 형상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입장을 택하였다. 이는 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나는 현상의 결과를 문제시하여 그 원인을 분석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산업화 과정을 통하여 농의 경제가치만을 추구해 왔고, 또한 그에 대한 가치평가의 결과가 오늘의 농업경시풍조를 가져왔다고 볼 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경제논리로 모색할 경우에는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의 가치를 농의 입장에서 좀더 본질적이며 전체적인 가치의 문제로 접근해 봄으로써 대안도 모색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연구에 활용된 자료로는 농업의 본질과 가치에 관한 철학, 이념을 논하고 있는 관계 문헌과 도시민의 농업관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자료, 그리고 연도별 국민학교 사회과 교과서가 사용되었다. 외국의 농업관 자료로는 일본과 미국의 농업철학 관련문헌을 참고로 하였다.

### 1.3. 보고서의 구성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논하였으며, 연구범위와 분석 방법 및 연구자료를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농업을 가치론적으로 접근하여 농업의 의미체계와 가치에 대한 제반 논의를 정리하였다. 「농」의 가치에 대해서는 농업의 역할, 기능, 의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농업의 가치추구에 있어서 중요한 시각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농업에 대한 혼재된 시각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농업의 가치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농업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농업에 대한 인식 또는 가치관은 주어진 각 사회의 역사와 사회구조, 여건에 크게 지배될 것으로 판단되어 먼저 세계사적 관점에서 문명의 전환에 따른 농업의 가치변화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우리 나라 농업의 역할변화를 시대적으로 고찰하였다. 다음에는 21세기에 추구되어야 할 농업의 가치내용과 그에 따른 농업의 형태를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 나라 도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업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 나라 도시민이 기대하는 농업의 역할과 농촌의 역할 그리고 직업으로서의 농업관등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국민들의 의식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교육의 현장에서 농업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국민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고찰하고 금후 국민들의 농업관 형성을 위하여 바람직한 교육내용에 대한 방향을 검토하였다.

제6장에서는 도시민의 의식조사 결과와 교과서 분석내용을 토대로 국민들의 농업관 형성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부록에서는 농업에 대한 가치인식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농업지도자의 농업철학과 신토불이 농업관을 소개하고 아울러 일본과 미국의 농업관을 정리하였다.

## 제 2 장

# 농업의 의미체계와 가치에 대한 논의

### 1. 농업의 역할과 가치

#### 1.1. 농업의 역할론 대두

우르과이 라운드 농업협상이후 농업분야에 거세게 밀어닥친 개방화의 물결은 한 나라의 농업생산기반과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심한 불안과 좌절감을 가져다 주었다. 이제 WTO체제의 출범으로 우리나라만이 시장개방에 반대하면서 농업보호를 주장할 수 만은 없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앞으로 농업을 어떻게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는 농업분야만이 아니라 전국민의 관심사이다.

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는 국민 개개인에게 있어서 농업의 존재가치가 중요하게 인정될 때 국가의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국민들이 각계 각층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인하여 뜻이 모아질 수 없다면 농업을 지키려는 노력에 힘을 모으기는 어렵다. 그동안 우리 나라 국민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그리고 농업관련 자료를 통해서 농산물 시장개

방을 둘러 싸고 농업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에 종종 접해 왔다. 상반된 논의의 주요 내용은 개방 불가피론에 따른 농업축소론과 개방을 반대하는 농업유지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을 둘러싸고 많은 반대 운동과 논쟁 과정에서 드러난 두 입장의 차이는 전자가 경제지상주의였다면 후자는 농업의 역할론을 강조한 논리였다.

경제지상주의가 농업에 관련되는 사회현상에 대하여 경제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여타의 가치는 고려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농업의 역할론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주목하여 농업이 산업으로서 갖는 경제적인 기능만이 아니라 환경보전의 기능, 사회문화적 기능까지도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과정에서 NTC(Non Trade Concern) 개념을 도입하여 자국에서 농업이 보호되어야 하는 논리를 세우면서 비롯되었다. 주요 선진국들은 농업의 다면적인 기능으로부터 정책지원의 논리를 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나라도 있다.

특히 일본은 농산물 시장개방을 계기로 농업이란 무엇인가, 즉 농업의 가치를 묻는 작업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고도경제성장으로 산업화 사회를 이룩한 일본이 농업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져 가면서 농업의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했던 것이다. 과연 농업은 없어도 좋은 산업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농업의 역할론에서 구하고자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에 즈음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농업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농업분야에서는 여러가지 슬로건이 등장하고 새로운 키워드가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 농업을 환경산업, 생명산업, 신토불이등으로 설명하면서 농업의 기능을 종래의 식량생산 공급의 기능만이 아닌 다면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새롭게 인식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의 역할에 대한 정리는 이정환(1991)의 연구에 잘 나타나 있으며 그밖에도 쌀이 계속 생산되어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를 제시하

는 연구로서 김동수(1994)의 연구와 산림의 기능을 시산한 것으로서 한상섭(1989)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농업의 국토 환경보전의 역할을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 밖에도 많은 저작물에서는 농업의 다면적인 공익적 기능에서 기본적 가치 또는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음을 찾고 있다.

이와 같이 농업의 역할이 새삼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국제화·개방화 되어 가는 경제시스템 속에서 우리 나라 농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에 기본적인 의도가 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농업의 가치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농업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야 하고 또한 자각될 때만이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 즉, 농업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인식되어야만 농업의 가치가 국민들의 의식 속에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농업의 가치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농업의 다면적인 공익적 기능에 대하여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어떠한 내용과 수준을 갖는 것일까. 만약 농업의 가치가 농업관련 학자들, 또는 사회운동가들 사이에서만 주장되고 만다면 일반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너무나 피상적인 수준으로 기억되어 농업을 적극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국민적 실천으로는 연결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농업의 가치에 대하여 깊이 탐구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의 가치가 밝혀지면 이를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계획과 시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의 가치를 밝혀 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 연구에서는 농업의 가치를 규명하는 기초적인 작업을 시도하였다.

## 12. 농업의 의미 추구에 대한 방법론

우리 나라의 농업에 관한 제반 논의는 대체로 산업으로서의 농업과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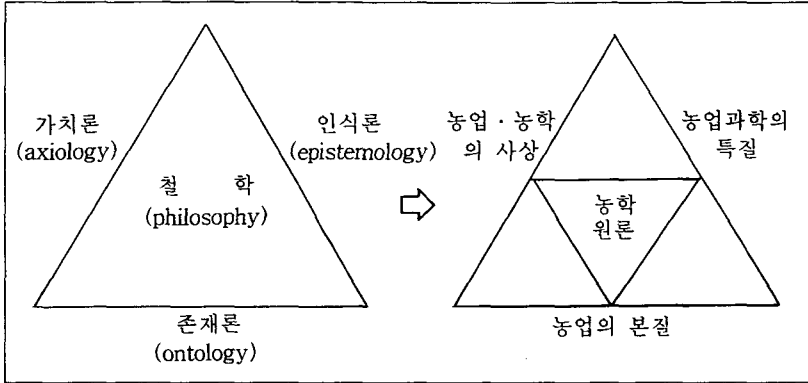
의 현장으로서 농촌, 그리고 생산주체로서의 농민이 주 내용을 이루어 왔다. 농업의 가치가 논의되는 경우에도 산업적인 중요도, 경제적인 중요도가 가장 우선적인 판단기준이 되었다. 농산물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농업에 대해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시각이 형성된 것도 바로 농업의 가치평가에 대한 제한된 시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업의 가치를 경제적인 측면만으로 평가할 때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1980년대 후반부터 농업분야에서는 농업의 「기본적 가치」, 「본질적인 가치」가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닌 보다 확대된 분야에 관련하여 농업의 가치가 언급된 내용이 눈에 띄게 되었다. 이와같은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농업의 본질에 대한 의미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농업에 내재된 본원적 가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는 사회적 조건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농업부문에서 본원적인 가치문제를 다루게 된 것은 자국의 농업을 종전대로 유지하거나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판단 근거로서 경제적인 가치, 특히 산업적인 측면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에서 비롯된 것이다. 농업은 타산업과는 달리 자연을 이용한 유기적 산업으로서 여러 가지 특질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이제까지는 산업적인 차원에서 제약조건으로만 인식되었을 뿐 그로 인하여 가치가 발생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하였다. 근래에 농업을 보호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인 입장의 논리로서 농업의 본질적 가치가 대두되고 있으나 농업이 인간의 생활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근원적인 문제로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다.

농업의 가치에 대한 탐구는 농업에 대한 경제학적인 접근이라기 보다는 철학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농업에 대한 철학적 접근은 농업의 특질을 규명하는 인식론적 접근과 농업의 본질을 밝히는 존재론, 그리고 농업의 의미를 탐구하는 가치론적 접근이 가능하다(그림 2-1). 근래에 논의되고 있는 농업의 역할과 기능, 가치에 관한 논의는 농업의 인식론과 존재론에 바탕을 두면서 농업에 대한 가치판단을 요하는 철학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1 농업의 철학적 접근 체계



농의 가치론적 견해는 농업과학적인 인식에서 보는 농업의 역할과는 달리 생활세계 속에서 직접 체득을 통하여 농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농민)들의 생활세계 속에서 농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이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목적과 이상을 세워서 자신의 생활을 주재해 가는 데 필요한 세계관과 관련이 있다.

농의 의미는 농민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도 관련이 된다. 농업은 도시민에게도 자연관, 종교관, 미의식, 생명의식등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의 사회적인 존재가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농의 의미를 음미해 보면서 농업의 가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농업에 대한 가치 판단은 개인의 가치 기준에 의해, 또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규범에 의해 달라진다. 개별 가치에 대한 인식은 개개인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다를 수 있으며 시대적으로도 현재 중요시되는 가치와 장래에 중요시 될 가치의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업의 가치에 대하여 개인이 인식하는 것은 객관적 대상에 대하여 주체가 가치 판단 또는 평가한 결과이므로 단순한 사실 판단과는 달리 知情意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한편 농업의 역할론에서 농업의 기능은 시대에 따라 가변적이고 사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의 역할이라고 할 때는 농업의 본원적인 기능 즉, 식량 공급의 기능, 환경 보전의 기능, 생명 유지의 기능, 원료 공급의 기능, 사회문화적 기능 등에 대하여 사회적인 판단과 평가가 작용한 것으로서 개별 기능보다 상위의 사회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부터 논의되어 온 농업의 본질적 가치란 한 사회에서 농업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고 부분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농업이 본래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 즉, 존재가치(raison d'être)로 평가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비교적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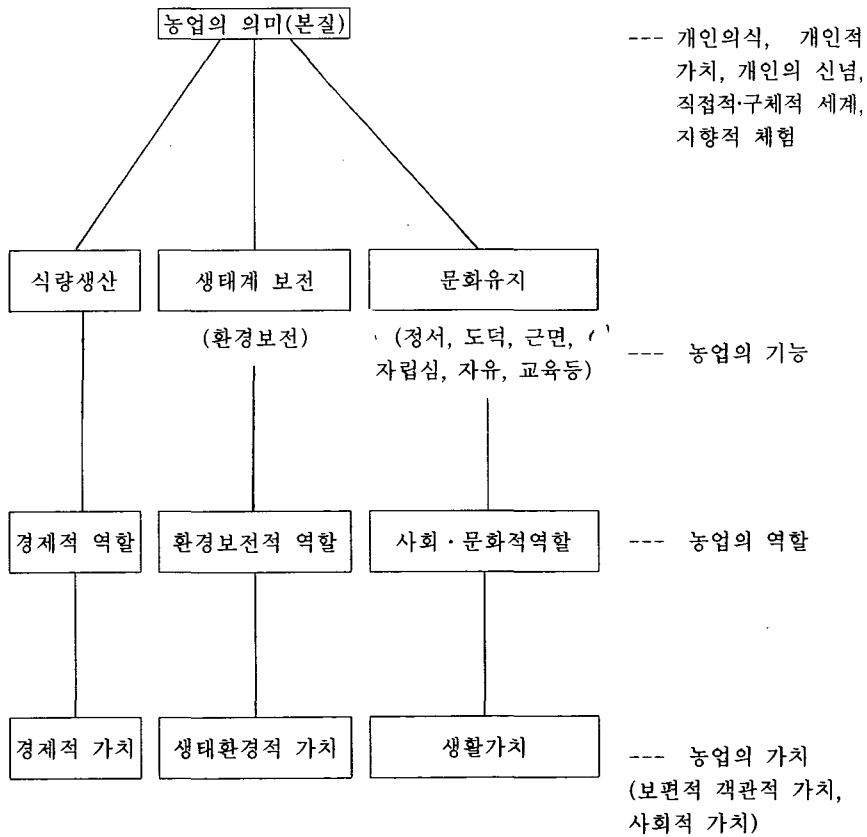
농업의 역할로서 기대되는 기능 중에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될 수 있는 내용과 과학적으로 계측될 수 없는 내용이 아울러 포함되어 있다. 즉, 식량공급기능, 환경보전(부분적이지만 화폐가치로 환산 시도)적 기능등은 그 가치를 화폐로 계측할 수 있으나, 문화, 예술, 생활(환경과 관련, 쾌적함 따위), 도덕(삶의 방식을 농업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인류의 위기를 구원할 수 있는 인류 구원의 가치), 교육, 공동체적 기능 등에 대해서는 경제적 척도로 계측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면 농업의 역할 중에서 경제적 척도로 계측될 수 없는 기능을 어떻게 형상화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농업의 본질적 가치를 형상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농업의 가치를 구체화시켜 보고자 한다. 즉,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농업의 역할을 사회 구성원들이 인식하게 될 때 그 역할의 내용으로부터 농업의 가치가 형상화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그 경우에 농업의 역할이 구체성과 보편성이 확보된 가치로 자각될 수 있으려면 사회 구성원이 농업의 역할이 발휘되는 장(場)을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접근한다면 국민에게 공급될 식량을 생산하는 기능, 생태계 환경을 보전하는 기능, 그리고 사람들의 정서, 도덕심, 근면성, 자립

심, 자유, 교육등과 같은 사회 문화유지 기능으로부터 각각 농업의 역할내용이 기대될 수 있으며 다시 각각의 역할 내용으로부터 농업의 다면적 가치가 도출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와같이 도출된 농업의 가치를 각각 경제가치, 생태환경가치, 생활가치로 명명하여 농업의 본원적 가치를 형상화해 보고자 한다(그림 2-2).

그림 2-2 농업의 의미체계



### 1.3. 농의 의미와 본질적 가치

농업의 가치를 논할 때 그 가치란 교환가치와 마찬가지로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사회적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농업은 다면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 가치를 형상화하는데 방법상에 어려움이 있다. 즉, 몰가치적인 과학적 분석으로는 농업의 본질적 가치가 형상화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의 가치를 직접 규명하기보다는 오히려 농의 의미를 폭넓게 탐구해 보는 것이 농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용이하게 형성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농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여 분석이라기보다는 철학적 탐구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후설 현상학의 「생활세계」 개념을 도입하여 농의 의미를 추구하는 장(場)으로 삼고자 한다(한국현상학회, 1992).

생활세계란 우리가 그 속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세계이다. 이 생활세계는 직접적 경험계의 규정을 받되 근대 자연과학의 이념에 따른 세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말하는 구체적 의미에서의 경험 즉 실제로 활동하고 평가하는 태도나 일상적인 여러 습관과 연관된 넓은 의미의 세계가 아니라 좁은 의미의 경험 개념이다. 그것은 개별 대상에 대한 직접적, 감성적 경험이고, 단적인 경험이다. 따라서 인간이나 문화적 대상과 단순한 자연, 물체적인 세계와는 구별되어 진다.

생활세계는 주체가 신체이기 때문에 물체의 측면과 정신의 측면을 더불어 가지고 있다. 신체는 감성론적 신체인 동시에 의지 신체이다. 즉 감각기관을 가진 신체는 주위환경과 자연적 인과관계 속에 있으며 동시에 의지적 존재이기 때문에 동기부여적 인과관계에 따르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신체가 감각하고 체험하는 세계는 체험된 세계이다. 그러나 이 신체적 주관은 바로 체험된 세계를 토대로 하여 그 위에 능동적인 정립 작용에 따른 자연연구나 여러 이론 구성, 또는 이성적인 숙고에 따른 윤리적 행위 등등 여러 문화적 행동을 하는 인격체, 정신적 존재이기도 하다.

우리를 둘러싼 주위세계는 “사실의 세계”일 뿐만 아니라 가치의 세계, 재

화의 세계, 실천의 세계이기도 한다. 그 속에서 우리는 “표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의욕”하는 나이며 나의 눈앞에 있는 사물들은 “사물로서의 여러 성질을 구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름답다든가, 추하다든가, 마음에 든다든가, 안든다든가, 쾌적하다든가, 불쾌하다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후설은 생활세계를 문화세계라고도 한다. 이때 문화란 의식적인 인간활동의 결과라는 의미에서 자연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자연은 인간의 간여가 조금도 없는 본래의 상태를 말하는 데 대해서, 문화는 인간의 능동적인 의식작용에 의한 형성체를 말한다. 문화세계는 의미의 총체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생활세계란 바로 이런 문화적 세계이다. 이 문화세계로서의 생활세계의 중심은 그 구성자요, 주체인 인격체들이다. 이 인격체는 주위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능동적인 문화활동을 통하여 주위세계를 변경개조해 가는 주체이다.

이상과 같은 생활세계의 개념을 농의 의미추구에 적용시켜 본다면 농의 의미는 생활세계 속에서 추구될 수 있다. 농업의 주체인 농민은 생업을 통해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생을 실현하고 또한 농업을 형성하는 환경과 농업이 창출하는 산물에 의해 비농업자의 생활도 충족이 된다. 그리고 문화의 원천으로서 농업은 인간의 삶의 방식에 관해서 창조적인 역할을 다해왔다. 예술, 종교, 기술, 교육, 생활양식 등 인간의 삶에 관계되는 제문화는 크고 작게 농업과 관련되어 왔으며 인간적인 생의 모든 국면과 복합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

과학적 세계의 부분적이고, 한정적인 인식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인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생활세계는 우리의 지역사회이며 이는 농업·농촌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생활세계의 농업·농촌은 과학적 지(知)의 궁극적인 기반으로 재인식되어야 하며 이 생활지(生活知), 경험지(經驗知)를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전개하여 인간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농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2. 농업의 가치 추구를 위한 기본시각

### 2.1. 경제활동 우선주의에 대한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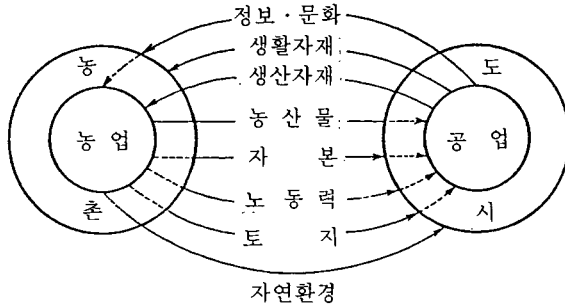
농업의 가치를 규명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기본적인 시각은 경제활동 우선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다. 근대 이후 인류는 경제발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생태환경을 교란하고 각종 공해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이제 인간의 생명과 생활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자연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일이야말로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인류 최대의 과제이다.

그동안 경제활동 우선주의는 산업혁명 이후 공업생산의 논리를 지배해 왔다. 산업혁명을 확으로 하는 근대사회는 시장경제를 전제로 하는 부단한 공업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공업화는 물질 자원, 노동력, 자본, 정보의 집적, 집중으로 이익을 추구하면서 도시화를 유발시켰다. 생산양식으로서 공업화, 생활양식으로서 도시화를 특징으로 하는 근대사회는 농업, 농촌을 공업화의 파라다임 속에 포섭하여 농업, 농촌을 변질시키면서 재편성하였다. 즉, 공업·도시와 농업·농촌 사이에 자원, 노동력, 자본, 정보의 상호이동 관계를 그림2-3과 같이 형성하게 된 것이다(坂本慶一, 1989).

농업·농촌은 공업·도시에 대하여 농산물, 노동력, 자본, 토지 및 자연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공업·도시는 공업제품(생산자재, 생활자재), 정보, 문화등을 농업·농촌에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관계가 등가로 형성되어 있으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막론하고 공업화사회에서는 양자의 사이에 항상 모순과 격차가 인정된다. 공업과 도시는 농업과 농촌에 대하여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명백히 지배적인 지위에 있다. 이러한 격차와 지배관계는 결국 공업화 사회의 파라다임과 그 자체의 특성에 의거하는 것이다.

그림 2-3 공업·도시와 농업·농촌과의 관계



이에 대하여 坂本교수는 공업화사회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막론하고 물량적 생산력의 효율적 극대화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면서 경제지배(econocracy), 공업기술지배(technocracy), 관료지배(bureaucracy)의 세가지 지배력이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같은 가치관계 구조를 공업화사회의 패러다임으로 명명하고 공업화사회는 이 패러다임에 농업·농촌을 포섭함으로써 (그림 2-3)과 같은 관계를 창출해 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세기말 후기산업사회로 진행되면서 생태계가 무시된 공업생산의 논리는 비판을 받기 시작하였다. 경제와 공업기술의 발달로 완전고용과 사회보장이 충실하게 되어 가는 대신 인간의 생활환경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 대량의 폐기물 발생, 환경오염 등으로 생태계의 붕괴 가능성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인간 자신이 생태계의 일원임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결국 경제활동의 폐해를 극복하는 길은 생명산업인 농업생산의 논리를 중시하는 것이며, 이는 산업사회 및 경제학의 재생에 불가결하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玉野井, 1985).

농업은 환경보전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논농사는 저수, 홍수방지, 국토보전, 물의 정화, 대기의 정화, 온난화 방지등 플러스 외부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업이 마이너스 외부효과가 큼에 비해 농업은 플러스 외부효과가 큰 것이다. 따라서 농업의 포기는 외부효과의 포기를

의미하며, 외부효과의 부재를 전제로 하는 국제분업론은 환경문제를 논리 속에 포함시키지 않는 비현대적 이론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 현재의 농업은 기업가적 농업관을 기본이념으로 하면서 농업의 공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즉, 인구증가, 분업의 진전, 농업취업인구의 감소, 생산기술의 발전에 의해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기치를 올리고 경영의 전문화와 작물의 단작화, 화학비료와 농약의 다투입, 기계화의 진전으로 농업에서도 마이너스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농업부문에서도 공업적 논리가 적용된 결과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또한 경제지상주의적 사상이 초래하는 문제로는 인간적 生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인간적 生, 즉, 생명의 건강을 유지하고 심적으로 여유있는 생활을 하며 만족감이 있는 인생을 보내고자 하는 인간 본래의 행복을 경제의 속성이 제약을 가하고 있다. 경제발전은 물질생활을 현저하게 풍요롭게 해주었지만 인간에게 귀중한 일상적 생활의 논리를 파괴해 가고 있다. 현대독일의 철학자 하버마스류로 말하자면 「(현대사회의) 시스템이 생활세계를 식민지화 해 가는」것이다(祖田修, 1994).

즉, 현대도시는 경제합리성을 우선하면서 거대화되어 왔으나 거주하는 도시민의 생활합리성이라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생활환경의 악화(소음, 대기오염, 하천오염, 음료수 오염등의 공해문제, 주택문제, 일조부족문제, 공원·녹지부족, 쓰레기, 각종 도시재해, 커뮤니티 붕괴, 고독, 정신장해의 증가, 범죄의 증가) 지가 앙등, 주택 부족 문제등으로 도시민들은 만족감을 상실하고 있다. 풍부한 자연과 생활의 여유를 찾아 도시민들이 지방을 지향하는 것도 도시화·공업화의 병폐를 농업과 농촌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보여진다.

한편 UR이후 농산물 시장개방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의 농업에 대한 시각은 양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표 2-1)과 같이 국제경쟁력의 저위를 근거로 하여 농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농업축소론(중앙일보, 1994년 8월 29일자 경제논단)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는 농업유지론이 각각 주장되고 있다(김성훈, 1992, 성진근, 1992 등).

표 2-1 농업에 대한 양분된 시각

| 농업에 대한 시각 | 근거논리                                | 평가기준                   |
|-----------|-------------------------------------|------------------------|
| 농업축소론     | 국제경쟁력의 저위에 따라 불가피하게 또는 선택적으로 농업을 포기 | 경제지상주의적 평가             |
| 농업유지론     |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                      | 경제, 환경, 문화적 가치의 종합적 평가 |

두시각의 근거논리는 농업에 대한 평가기준을 달리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농업축소론에서 주장하는 국제경쟁력의 저위란 결국은 경제지상주의에 입각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농업유지론은 농업의 가치를 경제, 환경, 생활의 다면적 역할에서 구하는 종합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농업에 대한 이 연구의 시각은 농업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농업유지론의 입장에 있다. 이 입장에 서서 볼 때 농업유지론은 비농업의 이해를 구하는 논리전개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설득 대상이 소비주체이며, 국가재정부담의 담세자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의 주체인 농민에게는 농업의 의미가 크게 부각되지 못하여 농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 사회가 농업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의 본질적 가치가 농업의 내부에서 규명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구성원들이 농업의 존재양태, 객관적 현상등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며 농업의 특질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의 본질적 가치가 발현되고 또한 이를 체득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2.2. 농업의 가치에 대한 이해

농업의 가치에 대한 철학적 이해는 일본 교오토대학에서 농학원론 강좌를 담당했던 坂本慶一교수의 「生の 농업」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하에서 농업에 대한 가치인식의 문제를 坂本の 저작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농업은 유기적 생명이 있는 작물이나 가축을 재배, 사육하여 보다 높은 경제가치를 실현하는 인간의 영위이며 목적적인 활동이다. 그러나 이때의 경제가치는 단순히 특정의 개인적 이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생활목적에 지향하는 독자적인 사회적 과제를 갖기 때문에 단순히 시장에서 의 교환을 통하여 획득되는 화폐적 경제가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坂本, 1971).

농업의 생산활동에는 시장경제의 틀에 넣을 수 없는 가치의 창출이 부단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농업이 생산물과 동시에 병행하여 산출하는 환경가치(environmental value)는 이것을 창출한 생산자의 손을 떠나 시장을 경유하는 일 없이 사회 구성원에 의해 널리 이용되어 향유된다. 물론 이러한 환경가치는 생산자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창출한 것이 아니라 농림생산물의 산출과정에서 부수적, 파생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생명의 존속에 적합한 물적 환경 없이 유기적 생산인 농업을 계속해 가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환경가치의 형성은 농업의 본질에 관련되는 가치 형성 활동이다. 더우기 농림업이 창출하는 환경가치는 공업화, 도시화에 수반되는 환경파괴의 진행에 따라 회소화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되어 간다. 이러한 환경가치도 경제가치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틀안에 매이지 말고 외부경제의 시각을 농업생산의 개념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坂本교수에 의하면 가치는 주체의 생존에 필요한 선택작용에 있어서 선택작용으로 기능하는 표상이며 사람들에 의해 사실상 바람직하다고 시인, 존중되는 어떤 존재, 물건의 일정한 성질, 관계, 양태에 대하여 일반

적으로 추상화된 관념이다. 이런 관점에서 농업의 가치는 生에 두어져야 한다는 철학적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때의 生은 생명, 생활, 인생을 포괄하는 말로서 특히 생명에 역점이 두어지는 개념이다(坂本, 1981).

生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수탄의 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역사의 과정에서 변화하지 않고 여러가지 문화와 계급을 통하여 항상 동일했던 가치판단이 있다. 그것은 생명과 건강의 적극적 가치와 고뇌와 죽음의 부정적 가치의 승인이다. 이와같은 변화하지 않는 가치판단이 없다고 한다면 역사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좀더 넓은 의미에서 역사란 인간에게 공통의 생의 投企의 수행이기 때문이다...생명과 건강은 실존적인 초역사적인 가치로서 모두 비현존적인 역사적 가치의 전제조건이며, 그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다...살려고 하는 投企야말로 모든 역사의 조건이므로 그것은 물론 자본주의나 공산주의의 投企보다도 보편적이며 과학·기술·문명의 세계적 投企보다도 또한 보편적이다」.

그런데 生은 그 자체가 스스로 단독으로 성립하여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하고 활동한다. 맥키버가 말한 바와 같이 「생명과 환경은 주체와 객체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환경은 생명에게 있어서 단순히 외적인 것이 아니고 생명의 외적 상관물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을 떠나서는 생명은 상상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잠재적 가능성에 머무를 것이다」.

그러나 生은 환경과의 관계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生과 환경을 매개하는 음식과 도구 또는 기술에 의해 존재하게 된다. 今西錦司박사는 생물, 식물, 환경의 상호연관을 유연한 원리를 가지고 생태학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생물의 세계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생태계를 전제로 하여 그것과 병행하는 또하나의 연쇄 즉 인간-음식-도구=기술-환경이야말로 농업의 세계로 이해할 수 있다.

「생물의 세계」는 생태계의 세계이므로 존재하는 세계이며 또한 인식의 대상이 되는 세계이다. 한편 농업의 세계는 만드는 세계, 또는 의지의 세계

이므로 가치추구의 세계이다. 따라서 生의 실현을 지향하지 않는 농업은 그 존재이유를 상실하게 되므로 生은 농업의 가치기준이 된다(坂本, 1981).

이상과 같은 철학적 입장에서 볼 때 농업을 생명산업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경제가치, 생태환경가치, 생활가치가 종합적으로 추구될 수 있다.

### 2.3. 농업의 다면적 역할과 가치

농업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경제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하는 입장과 경제주의로부터 탈피하여 농업을 본질적으로 평가하려는 입장이 있다. 이 두가지 접근은 모두 농업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접근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논의의 폭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화폐로 환산하여 농업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은 농업을 식량을 생산하는 단순한 산업으로 보는 경제주의보다는 환경보전의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으로 파악함으로써 훨씬 폭을 넓힌 견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접근에 있어서 경제외적 기능을 경제적 척도로 평가해보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농업의 가치를 형상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즉, 농업은 생태환경보전의 역할 뿐만 아니라 화폐의 환산이 곤란한 사회문화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의 가치는 본질적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농업의 가치는 농업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볼 때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앞의 그림 2-1 참조). 농업의 역할은 경제적 역할, 생태환경보전의 역할, 그리고 사회문화적 역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각각 가치를 도출하여 경제적 역할로부터는 경제가치, 생태환경적 역할로부터는 생태환경가치, 사회문화적 역할로부터는 생활가치 또는 문화가치를 도출할 수 있다. 이들 농업의 가치에 대한 평가 중에서 경제가치는 그대로 경제적인 척도로 평가할 수 있으나 생태환경가치와 생활가치인 사회문화 가치는 화폐로 환산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가치와는 다른 척도로서의 의식 체험과정이 필요하다.

농업의 경제가치는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비중이 감소된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측면이 있다. 한 국가에서 농업의 가치가 왜곡되어 인식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농업의 경제가치만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농업국에서는 당연히 농업의 경제가치는 지대할 것이며 공업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다. 그러나 농업의 생태환경가치는 국민들의 생활을 직접 제약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문제와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어느 나라에서나 중요한 절대가치로 부각된다. 특히 산업화된 사회일수록 공해문제는 더욱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다. 한편 사회문화가치인 생활가치는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현되고 창조되는 가치이다. 인간의 의식주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食의 문제는 농업과 직접 관련이 되며 생활양식에 따라 衣食住 전반이 규정되므로 농업의 생활가치는 추구될수록 발현되는 문화가치이다.

농업의 가치는 사회의 경제구조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지만 개인에게 있어서도 인생관, 자연관과 같은 가치관에 따라서 개인이 느끼는 중요도는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생태환경가치나 사회문화적인 생활가치는 개인의 생활 체험을 통해서 그 가치가 증감될 수 있다. 즉 절대적인 가치이지만 개인에게 자각되어야만 가치가 발현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농업의 존재가치인 경제가치, 생태환경가치, 생활가치를 개개인이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농업의 존재가치를 사회적으로 높이 인식시키는 길이 될 수 있다.

### 3.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접근 방법

국민경제 중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사회 일각에서는 농업의 가치를 경제가치로만 평가하여 소극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으로 농업을 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은 앞에서 논

의한 바와 같이 경제가치만이 아니라 생태환경가치, 생활가치가 다면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세계 속에 형성되어 있는 농업의 다양한 가치를 국민의 의식 속에 내면화시킬 필요가 있다. 농업의 가치가 보편적인 사회적 가치로 발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지→판단→가치관 형성→새로운 인지→판단→가치관 형성(의식화)의 피드백 과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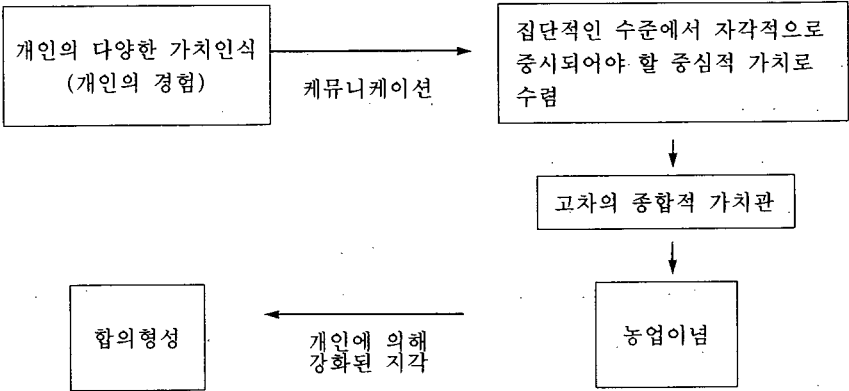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가치관의 형성과정에서는 내면화 과정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을 경험(새로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에 대한 가치관(농업관)형성과 관련하여 볼 때 새로운 지식의 경험경로는 학교교육과 대중매체를 생각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초등교육과정의 농업에 대한 지식과 체험은 매우 중요하며, 성인이 된 이후에는 대중매체에 의한 지식의 흡수가 크게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서 학교교육에서의 농업교육에 중요성을 부여하였으며 아울러 매스콤의 역할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문제는 개인의 경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농업의 여러가지 특질(가치인식)이 생명, 생활, 인생에서 어디까지 의의있는 것으로 폭넓게 자각적으로 인식되고 가치평가 되는가에 있다. 그리고 개인의 다양한 가치인식이 개인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집단적인 수준으로 형성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개인적인 수준이 아닌 집단적인 수준에서 농업의 가치가 중심적인 가치로 수렴될 때 농업에 대한 종합적인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계층간의 커뮤니케이션은 구성원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생활 운동을 통해서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 농민과 도시민의 교류를 통하여,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통하여 농업을 이해하고 농업에 대한 애착과 가치를 생활세계 속에서 발현시켜 감으로써 국민의 농업의식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나아가 국가 농업정책의 이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경제 내에서 농업을 보호 육성하는 데에 대한 국민의 합의를

이를 수 있는 기반이 더욱 공고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4 농업에 대한 국민의식 형성과정



## 제 3 장

# 농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

### 1. 문명의 전환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농업의 가치는 문명의 발달과정에 따라 다른 내용으로 평가되어 왔다. 소농적 가족경제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농경사회는 공동체적 사회로서 농업의 경제가치, 생태환경가치, 생활가치가 별도로 분화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농은 그 근본이 자연과 자연 순환의 질서를 의미하며, 자연과 더불어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였다. 삶의 공간인 농촌 마을은 자치적인 생활이 영위되는 문화공동체를 이루었다. 농업은 삶을 위한 물질적 기초이며, 생활, 문화의 토대가 되었고, 자연과 사람이 마을이라는 삶의 터를 중심으로 상보적인 유기체로 통합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적 농경사회로서 한국적인 농의 원형을 창출하였다. 500여년간 농업은 국가 재정의 원천으로서 수탈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나 국부의 원천으로서 존중되었고, 그 때문에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농에 대한 정신적 보상이 있었다. 농민들의 농업관은 자연순환질서의 조화를 기본으로 하는 자연주의적이고 상호주의적인 것이었다(최양부, 1993).

표 3-1 문명의 전환에 따른 농업의 가치관 변화

|             | 농경사회                                      | 산업사회                                                            | 후기 산업사회                             |
|-------------|-------------------------------------------|-----------------------------------------------------------------|-------------------------------------|
| 농업가치의<br>특성 | (전통적 가치);<br>소농적 가족경제<br>쌀중심의 자급농업<br>공동체 | (근대적 가치);<br>인구감소, 도시화, 겸업화<br>상업농확대, 시장경제<br>통합<br>공존적 경제관계 해체 | (탈근대적 가치)<br>공생적 가치추구 활동<br>산업의 복합화 |
| 경제적 가치      | 일체화된 절대적<br>가치                            | 절대적 가치                                                          | 농업의 다면적 기능에<br>대한 다원화, 중층화된<br>가치   |
| 생태환경적<br>가치 |                                           | 대상화된 가치                                                         |                                     |
| 생활가치        |                                           | 소외된 가치                                                          |                                     |

그러나 산업사회에서는 공동체적 사회가 해체되면서 농업의 가치에 분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산업사회의 농업형태는 상업농이 확대되면서 시장경제에 농업이 통합되는 과정이다. 공존적인 경제관계가 해체되어 버리고 근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산업사회에서는 시장경제시스템을 제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노동력도 상품화됨에 따라 인간의 생활에서 도덕적 윤리적 가치는 소외되어 버린다. 이에 따라 농업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만이 중시되고 생태환경가치나 생활가치는 대상화되고, 소외되어버린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문명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농경사회의 해체가 본격화된 것은 1960년 5·16 군사정부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착수한 후 1980년대까지의 30년간으로 볼 수 있다. 서구에서의 산업화는 18세기 중엽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300여 년간에 걸친 점진적인 전환과정을 겪었으나 우리나라는 30여년에 걸친 급격한 변혁과정이었다.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공유해 온 가치기준은 모든 것을 효율성의 척도로 평가하는 「경제주의 (경제성장 지상주의)」와 「경제성장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극도로 압축된 한국의 산업화 즉, 탈농경

사회화는 인간의 가치와 행동양식, 정치, 사회, 문화, 경제질서와 제도를 산업사회적인 것으로 재편하게 되면서 방향을 상실하고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농촌은 「자치적 지역사회」, 「생활공동체」라는 문화와 역사가 숨쉬는 「삶터」로서 보다는 농업생산을 위한 농경지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바뀌었고, 「식량생산기지」로 인식하게 되었다. 농민 역시 공업화를 위해 필수적인 「잠재실업 상태에 있는 무제한적으로 공급가능한 값싼 노동력」으로 평가되었다. 농업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민 기본식량의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게 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자연의 의미는 철저하게 증산을 위해 개발되고 이용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산업화와 함께 도시와 공업은 농민들의 탈농의식을 자극하여 대규모의 탈농이촌을 촉진시켜 온 것이다(최양부, 1993).

이제 현대의 산업사회는 정보화를 통해서 탈산업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탈근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후기산업사회에서는 물건을 생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의미있는 정보의 창조가 문제가 된다. 물건으로부터 정보로의 이행은 물건의 생산, 분배의 문제로부터 생활양식의 문제로의 이행을 동시에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생활의 의미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생활자의 논리가 중심이 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현대산업사회에서의 농업의 가치는 생활주체(생활자)의 시각에서 평가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생활자의 시각에서 추구되는 농업의 가치는 농업의 다면적 기능이 부각되면서 경제가치만이 아니라 생태환경가치, 생활가치가 다원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탈산업사회화를 지향하는 21세기에 있어서 정보화의 확산과 행동하는 소비자들의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수단의 하나로써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식품」에 대한 요구는 농업과 농촌의 존재양식에 변혁을 가져올 것을 예고하고 있다.

대도시 집중화의 한계와 비경제성 증대로 자치적, 공동체적 지역사회로서 농촌의 재발견, 안전한 식품확보를 위한 식품의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참여확대와 농업의 재발견, 자연과 더불어 자연속에서 싸우며

식품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농민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된 노동에 대한 재평가 등 농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은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농업, 소비자와 과 분리되어 이윤만을 추구하는 농업으로부터 자연생태환경과 소비자와의 조화 속에서 식품의 안전성과 농업의 지속성을 가능케 하고 농민들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농업으로 재편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다.

## 2. 우리 나라 농업의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우리 나라에서 농업의 역할론은 주로 경제발전초기에 자본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비농업부문으로 공급하여 비농업부문을 장기적으로 성장시키는 조건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전통적인 경제발전론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농업은 비료, 농약, 농기계등 농업생산요소의 수요 확대를 통하여 전체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농촌의 소비지출 시장은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농업의 역할론이다.

이와 같은 농업의 역할론을 경제적 역할론이라고 보면, 농업부문의 비중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산업으로서 농업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감소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업은 경제적 역할만이 아니라 환경보전적 역할, 사회문화적 역할등 다면적인 역할을 해 왔다. 이에 대한 가치평가를 충분히 하지 않고 경제가치만을 논의한다면 농업의 가치는 충분히 인식될 수 없다.

이 절에서는 시대의 변화속에서 우리나라 농업이 수행해온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1990년대에 우리사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농업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농업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농업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농업의 역할은 농업을 산업으로 위치지워

불 때 국가경제구조 속에서의 역할을 의미하게 되므로 우선 경제발전과정 속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농업의 역할을 경제발전 과정에 따라 분석한 연구로는 이정환(1991)의 연구를 들 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경제발전과정을 단계별로 시기구분한 후 각 시기마다 이루어진 농업정책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농업의 역할을 구명하고 있다. 즉 해방이후 1990년대까지를 5期로 시기구분하고,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농업이 수행해 온 경제적 역할을 분석하였다.

제1기라고 할 수 있는 해방이후 1960년까지의 시기는 식량의 절대공급 부족의 시기로서 생존수준에서 식량획득을 위한 농업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인식되었던 시기로 보고 있다. 이어서 1960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의 산업화시기를 산업화 초기(1960~60년대말), 산업화 진행단계(1970~70년대 후반), 산업화 단계(1970년대말~1980년대 후반)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농업부문으로부터 비농업부문에 자본과 노동력이 대량으로 투입되어 비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후반의 산업화단계에서는 개방농정하에서 농업부문의 자본이 비농업 부문으로 유출되는 한편 교육투자 등으로 농업부문의 자본유출이 더욱 증대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1980년대 말까지의 농업의 역할은 주로 자본유출에 의한 비농업부문의 자본형성과 농업부문의 고용효과 등의 경제적 역할이 국민경제 속에서 강조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 농업의 역할은 훨씬 다양한 내용을 갖는다. UR협상을 전후하여 농업을 보는 시각이 양분되면서 농업의 역할론은 경제적 역할 중심의 이론적 논의로부터 다면적 역할을 강조하는 담론적 논의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서구 각국에서 1980년대 이후 농업의 외부경제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 폭넓게 형성됨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의 역할론에서도 외부경제 효과와 같은 비교역적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상과 같은 농업의 역할론을 기초로 우리나라 농업이 수행해 온 역할을 다시금 경제적 역할, 환경보전적 역할, 사회문화적 역할로 분류해 본다면

경제발달과정별로 본 농업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2).

이정환의 연구와 동일한 시기구분하에서 1960년까지는 생존수준의 경제적 역할이 사회적으로 절실하게 인식되었던 시기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산업화 초기부터 산업화 과정에서는 생존수준은 벗어났으나 생활수준의 경제적 역할이 크게 인식되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즉,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생활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소득증대정책, 농촌개발정책이 실시되었던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의 산업화 시기에는 경제적 역할과 아울러 농업의 환경보전적 역할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산업화로 인하여 각종 공해가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되면서 종래 인식되어 왔던 농업의 경제적 역할만이 아니라 생태계 환경 문제와의 농업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농업 내 부적으로는 농약의 위해성, 중금속 오염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농업의 환경측면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1990년대에는 농업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좀 더 범위를 넓혀 다면적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인 경제적 역할과 환경보전적 역할, 사회문화적 역할등의 내용이 다양하게 논의되어 국제화시대의 우리농업을 유지보전해야 하는 논리로서 폭 넓게 인식되었다. 농업관계자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식품 안전성, 하천오염, 식수문제 등의 생활문제로서 농업문제가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제화시대에 농업의 생존전략으로서 1차 농산물의 생산만이 아니라 가공, 유통, 판매에 생산자가 참여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면서 농업의 사회문화적 역할에 대한 농민생산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 관광농업과 같은 복합적인 농업형태가 등장하면서 농업과 환경, 농업과 문화가 관련성을 가지며, 농업은 그 범위의 폭이 넓어지고 국민생활에 다각도로 접근해 가고 있다.

표 3-2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에 따른 농업의 역할 변화

| 시기구분                | 건국이후<br>격동기<br>(1948~60)                                           | 산업성장기<br>(1961~76)                                                    | 전환기<br>(1977~80년대말)                                                                                | 국제화 대응기<br>(1980년대말~현재)                                                                                                        |
|---------------------|--------------------------------------------------------------------|-----------------------------------------------------------------------|----------------------------------------------------------------------------------------------------|--------------------------------------------------------------------------------------------------------------------------------|
| 주요경제<br>변화          | 제도정비의<br>시기                                                        | 경제개발5개년<br>계획 추진,<br>고도경제성장                                           | 안정성장기<br>비교우위산업 육성<br>시장개방경제로 전환                                                                   | 국제화, 개방화<br>환경문제 심각                                                                                                            |
| 농업정책                | 농지개혁, 자<br>작농제도창설<br>양곡수급 및<br>가격안정책.<br>농업증산계획<br>추진, 잉여농산<br>물도입 | 식량증산계획.<br>농지개발.<br>농공병진, 소득<br>증대<br>농산물가격<br>지지정책<br>농업기계화<br>새마을사업 | 국민식량의 안정적<br>공급, 농어민소득증대<br>사업, 농산물가격안정<br>과 유통근대화, 상업<br>농확대, 농촌생활환경<br>개선<br>농어민후계자육성<br>농어촌종합대책 | 규모화, 전문화,<br>기술농업, 환경농업<br>농어촌발전대책<br>농어촌특별세신설<br>지원                                                                           |
| 주요농정<br>기조 및<br>농업관 | 자작농주의                                                              | 농촌근대화<br>국민식량확보                                                       | 농가소득향상<br>(경제합리주의)                                                                                 | 농업국제화 대응<br>농업관의 다양화(경<br>제합리주의 + 지역<br>주의 + 생태환경주<br>의 + 생활주의)                                                                |
| 농촌·농<br>업의 변<br>화   | 농촌의 민주<br>화<br>원면, 소맥의<br>생산위축, 저<br>곡가정책으로<br>인한 농가<br>부채         | 공업노동력 공<br>급, 대량이농<br>불균형공업화<br>도농간의 격차<br>심화                         | 상업농증대<br>농업성장부진, 농가경<br>제악화                                                                        | 농업인력의 고령화,<br>여성화,<br>농촌의 도시화, 과<br>소화, 혼주화<br>도시, 농촌의 교류<br>농업의 복합산업화<br>(지역특산물개발,<br>관광농업등)<br>도농통합(시군통합)<br>농업경영주체의 다<br>양화 |
| 농업의<br>역할           | 생존수준의<br>경제적 역할                                                    | 생존수준+생활<br>수준의 경제적<br>역할                                              | 생존수준+생활수준의<br>경제적 역할,<br>생태환경적 역할                                                                  | 생존수준+생활수준<br>의 경제적 역할,<br>생태환경적 역할,<br>사회문화적 역할<br>국제적 역할<br>(다면적 역할)                                                          |

### 3. 21세기를 향한 농업의 가치 추구

농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역할은 전통적인 농업의 역할론에서 거론되어 왔던 식량생산, 노동력 공급, 외화가득, 국내자본 형성, 공업원료 생산, 내수 시장 제공 등의 역할 외에도 파급되어 나타나는 효과로서 공공재 생산적인 기능으로부터 외부경제적 효과를 갖는다.

농업생산은 사적인 생산이지만 공공재 생산적인 기능으로 말마암아 그 가치가 시장에서 가격의 형태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성이 과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UR을 계기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비교역적 관심 사항(Non Trade Concerns)으로 협상의제에 공식적으로 포함, 논의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NTC란 가격으로 환산되지 않는 농업의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는 가격이 아닌 다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역시 가격만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NTC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그래야만 농업의 가치도 새롭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르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을 계기로 국내외에서 농림업의 자원보전기능을 화폐가치로 시산해 보는 작업들이 있었다(이정환, 1991). 이러한 시도들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를 경제적 척도로 나타내 봄으로써 농림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보려는 노력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실제로 농업의 역할에는 화폐로 평가할 수 없는 보다 많은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농업관련 문헌에서 농업의 역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본 것이 (표 3-3)이다. 이하에서 앞으로 중요시 될 농업의 역할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현대사회의 농업은 단순히 지역차원의 농업이 아니라 세계화 된 국제수준의 농업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21세기 사회를 향하여 국제화시대, 정보화

시대 속에서 농산물 무역 자유화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강화될 수록 더욱 더 인간의 생존에 밀접한 생산, 그리고 일상의 생활가치를 중시하는 농업, 지역농업이 큰 의미를 갖게 되리라는 전망이다.

표 3-3 농업·농촌의 역할

| 경제적 역할                                                                          | 생태환경적 역할                                                                                                    | 사회적·문화적 역할                                                                                     |                                                                                                                                                                                                      | 국제적 역할                                                    |
|---------------------------------------------------------------------------------|-------------------------------------------------------------------------------------------------------------|------------------------------------------------------------------------------------------------|------------------------------------------------------------------------------------------------------------------------------------------------------------------------------------------------------|-----------------------------------------------------------|
| <b>1 효율적 식량 생산</b><br>저렴하고, 안정적 인 식량공급<br>생활·주택자재 공급                            | <b>1 국토보전</b><br>생태계 유지<br>수자원 함양<br>토양 보전<br>자연담 기능<br>지표면저수<br>지하저수<br>홍수방지<br>토양유실 방지<br>자연동식물 보전        | <b>1 일반적 역할</b><br>사회의 다양성·안정성·영속성<br>지역사회 유지<br>분업화·단순화극복<br>획일화·전체화 극복<br>사회적 안정층<br>사회의 연대성 | <b>5 인간성 회복의 기능</b><br>(1) 場의 제공<br>자연휴양림<br>취미농원<br>관광농원<br>시민농원<br>체험농원<br>(2) 인간성회복<br>편안·휴식<br>인간관계개선<br>가족관계개선<br>물질만능이 아닌 새로운 풍요<br>농업의 자유로움<br>독립심<br>생활의 변화·다양성(일인 동시다직, 일인 일생 다직)<br>예술과 농업 | 각국의 경제 균형<br>식량원조<br>농업기술 협력<br>자매지역<br>자매마을<br>생활·문화의 교류 |
| <b>2 양질의 식품 공급</b><br>신선도, 맛, 다양한 품목<br>주년 공급                                   | <b>2 생활 환경 보전</b><br>수질보전·정화<br>대기보전·정화<br>소음방지<br>악취방지<br>자연경관<br>녹지공간<br>전원풍경<br>재해피난지                    | <b>2 사회적 교류</b><br>도시농촌교류<br>산지직거래운동<br>유기농업운동<br>협동조합간 제휴<br>도시농촌 자매마을<br>U-TURN·신규진입         | (3) 의료적 효과<br>자연과 건강<br>긴장완화<br>삼림욕<br>현대병 개선                                                                                                                                                        |                                                           |
| <b>3 국민경제적 역할</b><br>노동력·토지·자본 성장에 기여<br>식량안전보장<br>식량비축<br>안정적 경제성장<br>위기시 흡수효과 | <b>3 생태농업의 가능성</b><br>안전식품<br>첨가물 회피<br>생물제어(개량, 육종, 천적)<br>농약·화학비료 감소<br>자원재이용<br>지역에너지 이용<br>자연농법<br>유기농법 | <b>3 복지적 기능</b><br>고령화사회에서 노년기 삶의 보람<br>고용·일자리 제공<br>연령에 적합한 일<br>장애자의 생활에 적합                  | <b>6 삶의 방식으로서의 농업</b>                                                                                                                                                                                |                                                           |
| <b>4 지역경제진흥</b><br>지역경제의 다양성·안전성<br>고령자고용효과<br>에너지생산성<br>향상의 가능성                |                                                                                                             | <b>4 교육적 기능</b><br>자연에 대한 이해<br>조화와 협조<br>인내력·순박<br>창조력<br>학교농원<br>산촌유학                        |                                                                                                                                                                                                      |                                                           |

자료: 祖田修, 現代 日本の 農業觀, 1994.

인류는 20세기에 과학기술의 발달로 공업화를 이루었으나 오늘날 「지구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인간의 생명환경 파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보면 과학기술은 인류의 생활에 있어서 과연 무엇이었는가라는 반성마저 하게 된다. 지구 규모의 위기, 인간 생존의 위기가 문제시되는 미래사회에서 농업은 인간의 생존이 걸려 있는 산업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중대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농업을 보는 시각은 전통적인 생산학이나 최근의 환경론으로부터 좀 더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즉 농업은 산업이라는 측면(환경문제를 포함한 경제적인 측면)과 생활문화의 측면(농업의 생활 문화적 측면)의 두가지 측면에서 아울러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 3.1. 환경과 자원을 보전하는 농업

자연은 문명의 발달에 따라 인위적으로 관리되어 왔으며 이는 농업활동에 의해 유지 보전되어 온 측면이 크다. 농업을 건전하게 유지해 옴으로써 도시의 「생활경제」, 「생활문화」, 「생활환경」이 지탱되어 온 것이다. 농업은 개별 경영으로 사경제를 추구하면서 영위되지만, 푸른 공간의 환경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공익적인 보전효과를 발휘해 온 것이다. 따라서 푸른 공간과 문화를 공유해 가기 위해서는 자연과 인간의 활동에 의해 생산되는 농업, 농지를 지역사회의 공유재산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에 국민들이 공통인식을 갖고 합의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 3.2. 건강과 영양 공급원으로서의 농업( 생활가치 창출의 역할)

농업은 본래 식생활과 분리될 수 없는 산업이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재료로 각 가정에서 요리를 하여 고유의 맛을 창조해 왔다. 그것이 바로 「고향의 맛」이고, 「어머니의 손맛」이다. 그러나 도시화와 도시문화의 확대에 따라 도시생활의 간편성, 편리성, 서양식 유행등은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 외식산업의 발달을 가져왔으며 이는 안전성과 영양상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젊은이들의 미각을 단순화시키고 서양식으로 고정시켜 버린다. 이는 식문화의 예속을 초래하게 되며, 우리 풍토에 맞

는 다양한 식품의 소비를 감퇴시킨다. 식문화의 감퇴는 문화의 각 분야에 영향을 주고 우리 국민의 정신세계까지 지배하게 된다. 다양한 세계의 음식문화에 접하는 것도 고유의 음식문화가 존재할 때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풍토에 맞는 식문화를 보전하고 유지하는 것은 농업분야의 역할이다. 진품의 농산물을 안전하게, 신선하게 공급함으로써 차세대의 젊은이들에게 고유의 맛을 익히게 하고 건강한 심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농업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영역이라 할 것이다.

### 3.3. 지역복합체를 주도하는 농업( 지역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역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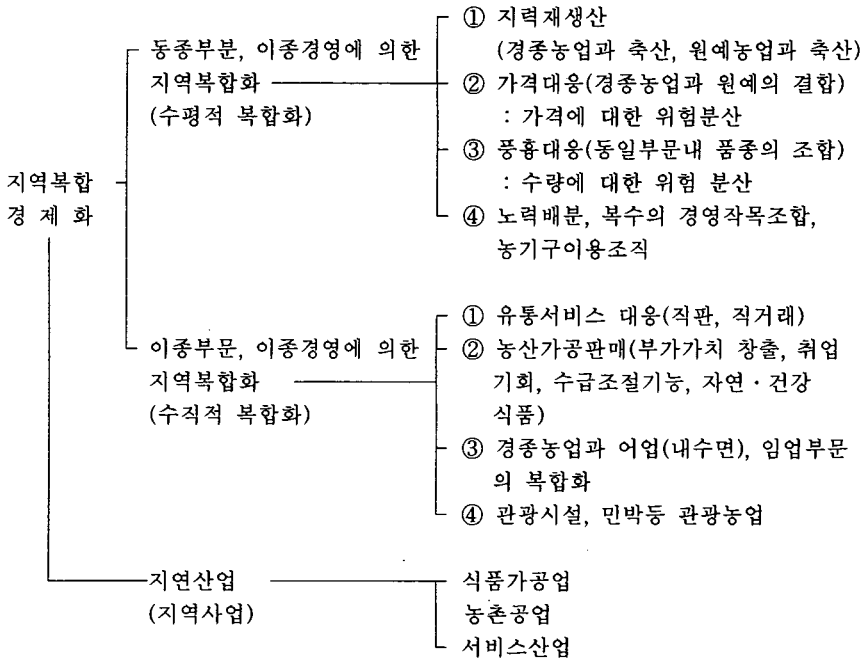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모델로서 농업부문을 토대로 지역자원을 이용한 생산에서 유통, 가공, 소비과정을 지역사회, 지역생활과 연결시키고 거기에 관광사업까지 포함시킨 지역복합화의 개념이 있다. 지역복합화는 경제와 생활문화를 일체가 되게 하는 것으로 농업이 토대산업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복합체에는 동종부문의 결합에 의한 복합화와 이종부문을 결합시킨 복합화가 있다. 동종부문 복합화는 수평적 지역복합체로서 생산성이 높은 단일경영체가 일정한 지역내에서 상호보완, 복합관계로 결합하여 하나의 경영체로 수익을 올리는 형태이다. 예를 들면 축산경영과 수도작경영의 결합이라든가 채소원예농가와 축산농가의 결합과 같은 것이다.

이종부문복합화는 수직적 지역복합체로서 농업부문과 유통부문, 농산물 가공판매, 지역식품산업이 결합을 이루는 것으로 임업부문과 관광시설, 민박이 결합하는 복합화도 포함이 된다.

지역농업에서 이종부문의 결합에 의한 복합화는 토지장비, 자본장비가 작은 개별경영으로는 자본구성이 작아서 부가가치가 작지만 지역전체의 자본구성을 높임으로써 부가가치 창출력을 신장시키고 지역노동시장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지역복합경제의 조직을 개념화하면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농업의 지역복합경제화 조직



자료: 竹中久二雄外, 農を生命の産業として考える, 1990.

지역복합체의 대표적인 형태인 관광농업은 도시생활자와 자연과의 교류, 생명순환의 흐름을 효용화시킴으로써 도시생활에서 결여되어 있는 자연과 인간의 생명교류를 적극적으로 체험시키는 생명산업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 3.4. 경관, 풍경으로서의 농업(자연과 인간의 생명교류의 역할)

지역에는 각각 그 지역의 얼굴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토지의 개성, 공간적 산업으로서 농업의 활동과 생활의 역사가 반영되어 형태를 이루기 때문이다. 도시화가 확대됨에 따라 생활환경이 악화되면서 도시와 환경을 조화시키는 도시계획의 중요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종래의 도시계획에는 풍경

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은 좀처럼 찾아 볼 수가 없다.

획일적인 토지이용계획에서는 인간과 푸른 공간의 공존은 고려되고 있다 하더라도 풍경으로서의 시점이 결여되고 있다. 경관, 풍경으로서의 농업은 단순한 푸르름에 대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과의 생명의 교류를 주제로 하는 것이다. 풍경이란 살아있는 인간의 정념(情念)의 교류를 실감할 수 있는 原風景을 의미한다. 이것을 「농의 미학」, 「농촌의 미학」이라고 부르는 것도 단순히 녹색공간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21세기 농업의 비전을 생명산업으로 위치지우는 이유는 단지 높은 생산력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푸른 공간, 휴식공간등을 제공하는 기능론으로만 농업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와 인간의 생존권인 생활체계 속에 농업을 불가결한 것으로 위치지움으로써 농업·농촌을 풍경으로서의 농업, 그리고 「생명의 교류」의 장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후기 산업화 사회인 21세기는 국제화, 고령화, 정보화 사회로서 인간생활의 가치관도 크게 변화하여 다양한 형태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에서 농업에 대한 기본인식은 공공적 경제부문으로서 환경보전의 역할, 건강과 영양을 공급하는 생활가치 창출의 역할, 자연과 인간의 생명교류 역할에 그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 제 4 장

# 농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

## 1. 조사목적과 조사방법

### 1.1. 조사목적과 조사내용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체결 이후 농산물 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농업을 보호하고,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도시민들이 농업에 대하여 부여하는 중요도, 농업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그 내용, 직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태도, 농업에 대한 전망, 농업지원정책에 대한 태도등으로 구성되었다.

### 2.2. 조사방법

서울에 거주하는 도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조사표 중에서 집계 가능한 473명의 조사표를 분석자료로 처리하였다.

조사는 1994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자는 소득과 연령의 계층별 구성을 감안하여 서울시내의 초,중,고,대학의 각급 학교에서 3개교씩 총 12개교를 유의선정하여 각 학교의 학부형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각 학교에서 50명씩의 학생에게 조사표를 배부하여 학부형들이 직접 기입하는 방법으로 조사되었다.

## 2. 조사응답자의 특성

이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30대(23.3%), 50대(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녀가 거의 같은 비율로 응답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소득계층은 월평균소득이 200만원 이상되는 가구가 40%를 차지하여 도시근로자 평균소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대졸이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졸 이하는 11.8%로 비교적 학력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조사되었다.

표 4-1 조사응답자 연령별 성별 구성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전체         |
|---|----------|------------|-----------|----------|--------|------------|
| 남 | 10( 4.2) | 31(13.0)   | 148(62.2) | 46(19.3) | 3(1.3) | 238(100.0) |
| 여 | 10( 4.3) | 79(33.6)   | 136(57.9) | 9( 3.8)  | 1(0.4) | 235(100.0) |
| 계 | 20( 4.2) | 110(23.30) | 284(60.0) | 55(11.6) | 4(0.8) | 473(100.0) |

표 4-2 조사응답자 가구소득별 구성

|     | 50만원<br>이하 | 50-100<br>만원 | 100-150<br>만원 | 150-200<br>만원 | 200-250<br>만원 | 250만원<br>이상 | 전체    |
|-----|------------|--------------|---------------|---------------|---------------|-------------|-------|
| 응답자 | 2          | 45           | 118           | 119           | 136           | 53          | 473   |
| %   | 0.4        | 9.5          | 24.9          | 25.2          | 28.8          | 11.2        | 100.0 |

표 4-3 조사응답자 교육수준별 구성

|   | 국졸      | 중졸       | 고졸        | 대졸        | 전체         |
|---|---------|----------|-----------|-----------|------------|
| 남 | 6(2.5)  | 16(6.7)  | 75(31.5)  | 141(59.2) | 238(100.0) |
| 여 | 7(3.0)  | 27(11.5) | 104(44.3) | 97(41.3)  | 235(100.0) |
| 계 | 13(2.7) | 43(9.1)  | 179(37.8) | 238(50.3) | 473(100.0) |

표 4-4 조사응답자 직업별 구성

|   | 공무원     | 회사원      | 교사      | 전문직     | 자영업       | 의사     | 주부        | 기타      | 계          |
|---|---------|----------|---------|---------|-----------|--------|-----------|---------|------------|
| 남 | 23(9.7) | 83(34.8) | 6(2.5)  | 13(5.5) | 90(37.8)  | 3(1.3) | 0(0.0)    | 20(8.4) | 238(100.0) |
| 여 | 2(0.9)  | 8(3.5)   | 13(5.5) | 7(3.0)  | 21(8.9)   | 0(0.0) | 173(73.6) | 11(4.7) | 235(100.0) |
| 계 | 25(5.3) | 91(19.3) | 19(4.0) | 20(4.2) | 111(23.5) | 3(0.6) | 173(36.6) | 31(6.6) | 473(100.0) |

또한 응답자의 직업별 구성은 주부가 3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자영업(23.5%)으로 나타났다.

### 3. 조사 분석 결과

#### 3.1. 농업의 중요도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

우리 사회에서 산업으로서의 농업이 어느 정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자천하지대본」의 어귀를 이용하여 농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질문하여 보았다. 이에 대해서 응답자의 53.4%는 농업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국가경제의 근본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국가의 근본은 아니나 중요하게 생각하

고 있다고 응답한 도시민은 38.7%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업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도시민은 1.9%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농업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4-5).

조사결과를 연령별 학력별로 보면 연령별간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력이 높은 층에서 농업의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농자천하지대본」으로 표현되는 농업의 중요성

| 문항                                                                             | 응답자<br>계       | 연령별            |                |               | 학력별           |                |                |
|--------------------------------------------------------------------------------|----------------|----------------|----------------|---------------|---------------|----------------|----------------|
|                                                                                |                | 30대<br>이하      | 40대            | 50대<br>이상     | 중졸<br>이하      | 고졸             | 대졸             |
| 농업은 여전히 국가경제의<br>근본이 되는 산업이다                                                   | 243<br>(52.0)  | 70<br>(58.8)   | 141<br>(50.2)  | 32<br>(55.2)  | 33<br>(60.0)  | 109<br>(61.9)  | 101<br>(42.8)  |
| 중요하기는 하지만 국가<br>경제의 근본이 되는 산업<br>은 아니다                                         | 188<br>(40.3)  | 48<br>(40.3)   | 120<br>(42.7)  | 20<br>(34.5)  | 14<br>(25.5)  | 53<br>(30.1)   | 121<br>(51.3)  |
| 이제는 중요하지도 않고<br>근본이 되는 산업도 아니<br>다.                                            | 9<br>(1.9)     | 3<br>(2.5)     | 3<br>(1.1)     | 3<br>(5.2)    | 2<br>(3.6)    | 4<br>(2.3)     | 3<br>(1.3)     |
| 원래 농민을 통치하기 위<br>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말<br>이므로 현재 우리나라 농<br>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할<br>때 적합하지는 않다. | 24<br>(5.1)    | 6<br>(5.0)     | 16<br>(5.7)    | 2<br>(3.4)    | 5<br>(9.1)    | 9<br>(5.1)     | 10<br>(4.2)    |
| 모르겠다, 무응답                                                                      | 3<br>(0.6)     | 1<br>(0.8)     | 1<br>(0.4)     | 1<br>(1.7)    | 1<br>(1.8)    | 1<br>(0.6)     | 1<br>(0.4)     |
| 전 체                                                                            | 473<br>(100.0) | 119<br>(100.0) | 281<br>(100.0) | 58<br>(100.0) | 55<br>(100.0) | 176<br>(100.0) | 236<br>(100.0) |

표 4-6 도시민이 생각하는 산업의 중요도 순위

| 순<br>위 | 농<br>업 | 임<br>업 | 어<br>업 | 공업<br>(제조<br>업) | 상<br>업 | 무<br>역<br>업 | 광<br>업 | 금<br>용<br>업 | 운<br>수<br>업 | 서<br>비<br>스<br>업 | 기<br>타 | 무응<br>답 | 계     |
|--------|--------|--------|--------|-----------------|--------|-------------|--------|-------------|-------------|------------------|--------|---------|-------|
| 1순위    | 163    | 4      | 1      | 205             | 9      | 66          | 1      | 4           | 0           | 14               | 3      | 3       | 473   |
| (%)    | 34.5   | 0.8    | 0.2    | 43.3            | 1.9    | 14.0        | 0.2    | 0.8         | 0.0         | 3.0              | 0.6    | 0.6     | 100.0 |
| 2순위    | 52     | 8      | 13     | 165             | 30     | 161         | 2      | 17          | 3           | 18               | 0      | 4       | 473   |
| (%)    | 11.0   | 1.7    | 2.7    | 34.9            | 6.3    | 34.0        | 0.4    | 3.6         | 0.6         | 3.8              | 0.0    | 0.8     | 100.0 |

한편 현재 우리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농업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6.4%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제조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2.5%로 나타났다. 도시민들은 농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으나 산업별 중요도에 대해서는 63.6%의 도시민이 농업보다 타산업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4-6).

### 3.2. 농업의 역할에 대한 인식

다음은 도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농업의 구체적인 가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업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에 대한 도시민들의 인지도를 파악해 보았다.

#### 3.2.1. 농업의 경제적 기능

##### ① 농업의 식량공급 역할에 대한 인식

우리 나라 농업에 의해 식량을 자급하는 것에 대하여 도시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 두가지 질문을 해 보았다.

먼저 외국 농산물이 국내산 농산물보다 가격이 쌀 경우 수입을 해야 할지 아니면 국내에서 생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60.8%의 응답

자는 외국산보다 비싸더라도 농산물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35.0%의 응답자는 적어도 쌀만큼은 자급해야 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국내산보다 외국 농산물이 싼 품목은 수입하는 것이 좋다는 반응을 보인 비율은 4.5%에 불과하였다(표 4-7).

또한 현재 우리 나라의 식량자급도(식량작물의 경우 70%, 사료곡물을 포함할 때 30%수준)를 제시하고 앞으로 식량자급 수준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를 질문한 문항에 대해서는 55.7%의 응답자가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식량자급도를 훨씬 더 높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현재수준을 유지하면 된다는 의견은 37.3%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에서 값싼 식량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식량자급도를 높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자는 4.5%에 불과하였다(표 4-8).

조사결과를 계층별로 보면 연령별로는 젊은 층일수록,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식량자급도를 높여야 한다는 태도를 나타내었다.

표 4-7 외국 농산물이 국내산 농산물보다 가격이 싼 경우 수입 희망 여부

| 문                      항                          | 응답자 | 비율(%) |
|---------------------------------------------------|-----|-------|
| 국내산보다 외국산이 더 싼 농산물은 수입하는 것이 좋다                    | 14  | 3.0   |
| 외국산보다 비싸더라도 농산물은 생산비를 낮추는 노력을 하면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좋다 | 287 | 60.6  |
| 외국산보다 비싸더라도 적어도 쌀과 같은 기본식량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좋다       | 165 | 34.9  |
| 모르겠다. 무응답                                         | 7   | 1.5   |
| 계                                                 | 473 | 100.0 |

이와 관련하여 품목별로 수입 농산물과 국내산 농산물의 구매의사를 질문한 결과 외국 농산물의 가격이 훨씬 싸다고 하더라도 쌀에 대해서는 88.5%가 오이는 81.3%, 고추는 88.2%, 참깨는 75.8%, 인삼은 92%, 감귤은 66.4%의 응답자가 국내산 농산물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로 품목별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어려우나, 대체로 국산농산물의 구매의사는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인삼이 가장 높았고, 감귤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품질이 차별화되어 있는 농산물일수록 구매의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4-9).

표 4-8 우리 나라 식량 자급도에 대한 인식

| 문 항                                          | 전체             | 학 력 별         |                |                | 연 령 별          |                |               |
|----------------------------------------------|----------------|---------------|----------------|----------------|----------------|----------------|---------------|
|                                              |                | 중졸이하          | 고 졸            | 대 졸            | 30대이하          | 40대            | 50대이상         |
|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식량자급도를 훨씬 더 높여야 한다           | 261<br>( 55.7) | 24<br>( 43.6) | 98<br>( 55.1)  | 139<br>( 58.9) | 77<br>( 59.7)  | 155<br>( 55.2) | 29<br>( 49.2) |
| 현재 수준의 식량자급도를 유지하면 된다                        | 175<br>( 37.3) | 25<br>( 45.5) | 70<br>( 39.3)  | 80<br>( 33.9)  | 45<br>( 34.9)  | 103<br>( 36.7) | 27<br>( 45.8) |
| 외국에서 값싼 식량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식량자급도를 높이려고 할 필요는 없다. | 21<br>( 4.5)   | 1<br>( 1.8)   | 7<br>( 3.9)    | 13<br>( 5.5)   | 4<br>( 3.1)    | 14<br>( 5.0)   | 3<br>( 5.1)   |
| 모르겠다<br>무응답                                  | 12<br>( 2.6)   | 5<br>( 9.1)   | 3<br>( 1.7)    | 4<br>( 1.7)    | 3<br>( 2.3)    | 9<br>( 3.2)    | 0<br>( 0.0)   |
| 계                                            | 469<br>(100.0) | 55<br>(100.0) | 178<br>(100.0) | 236<br>(100.0) | 129<br>(100.0) | 281<br>(100.0) | 59<br>(100.0) |

표 4-9 국내산 농산물과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품목별 구매의사

| 품 목 | 외국산 |       | 국내산 |       | 무응답 |       | 전체  |       |
|-----|-----|-------|-----|-------|-----|-------|-----|-------|
|     | 응답자 | 비율(%) | 응답자 | 비율(%) | 응답자 | 비율(%) | 응답자 | 비율(%) |
| 쌀   | 54  | 11.4  | 414 | 87.5  | 5   | 1.1   | 473 | 100.0 |
| 오이  | 87  | 18.4  | 378 | 79.9  | 8   | 1.7   | 473 | 100.0 |
| 고추  | 55  | 11.6  | 411 | 86.9  | 7   | 1.5   | 473 | 100.0 |
| 참깨  | 112 | 23.7  | 350 | 74.0  | 11  | 2.3   | 473 | 100.0 |
| 인삼  | 37  | 7.8   | 427 | 90.3  | 9   | 1.9   | 473 | 100.0 |
| 감귤  | 153 | 32.4  | 308 | 65.1  | 12  | 2.5   | 473 | 100.0 |

## ② 타산업의 발전에 대한 농업의 기여도

우리 나라 농업부문은 경제성장기에 자본과 노동을 타산업에 제공함으로써 타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학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도시민의 인식을 조사해 본 결과 응답자의 38.9%는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특별히 기여도가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53.0%이었으며, 2.4%는 전혀 기여하지 않았거나 또는 농업은 국가경제발전과 무관하다고 응답하였다(표 4-10).

조사결과를 계층별로 보면 학력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농업의 경제발전 기여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농업부문이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서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앞으로 농업부문에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절대적인 설득력은 갖지 못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젊은 계층일수록 그러한 논리는 설득력이 약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농업이 타산업의 발전과 깊이 관련이 있음은 대부분 인식하고 있었다.

표 4-10 국가 경제발전에 대한 농업의 기여도에 대한 인식

|                                    | 전체             | 학 력 별         |                |                | 연 령 별          |                |               |
|------------------------------------|----------------|---------------|----------------|----------------|----------------|----------------|---------------|
|                                    |                | 중졸이하          | 고졸             | 대졸             | 30대이하          | 40대            | 50대이상         |
| 기여한 바가 대단히 크다                      | 182<br>(38.9)  | 24<br>(44.4)  | 59<br>(33.0)   | 99<br>(42.1)   | 52<br>(40.0)   | 98<br>(35.1)   | 32<br>(54.2)  |
| 어느 정도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특별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 | 248<br>(53.0)  | 25<br>(46.3)  | 101<br>(56.4)  | 122<br>(51.9)  | 62<br>(47.7)   | 162<br>(58.1)  | 24<br>(40.7)  |
|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 7<br>(1.5)     | 2<br>(3.7)    | 4<br>(2.2)     | 1<br>(0.4)     | 0<br>(0.0)     | 5<br>(1.8)     | 2<br>(3.4)    |
| 국가경제 발전과 농업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 4<br>(0.9)     | 0<br>(0.0)    | 3<br>(1.7)     | 1<br>(0.4)     | 3<br>(2.3)     | 1<br>(0.4)     | 0<br>(0.0)    |
| 모르겠다                               | 27<br>(5.8)    | 3<br>(5.6)    | 12<br>(6.7)    | 12<br>(5.1)    | 13<br>(10.0)   | 13<br>(4.7)    | 1<br>(1.7)    |
| 계                                  | 468<br>(100.0) | 54<br>(100.0) | 179<br>(100.0) | 235<br>(100.0) | 130<br>(100.0) | 279<br>(100.0) | 59<br>(100.0) |

### 3.2.2. 농업의 생태환경 보전 역할

농업은 푸른 공간을 제공해 주고, 산소 공급을 통하여 대기를 정화하며, 홍수조절과 토양유실을 막는 등 자연환경의 유지 보전 기능을 하고 있다. 반면에 현대의 농업생산은 수량증대를 위해 농약, 화학비료를 다량 살포하고 있으며 집약축산으로 인하여 축산폐수를 다량 발생시키는 등 자연환경을 악화시키는 측면도 있다.

이같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농업의 생태환경 보전 기능에 대하여 도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았다. 조사결과는 환경보전의 측면이 크다는 응답이 47.9%, 환경을 훼손시키는 측면이 크다는 응답은 16.5%로 나타났다. 반면에 농업은 환경보전의 측면과 훼손의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응답도 25.6%로 나타났으며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어렵다고 하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자가 9.9%로 나타났다(표 4-11).

조사결과를 학력별로 보면 고학력층에서 농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으며 연령별로는 40대이하의 층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농업의 「생태환경보전의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부정적으로 보거나 또는 농업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측면도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환경의식을 조사한 결과는 39.5%의 응답자가 우리 나라의 환경문제를 아주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56.4%는 환경문제를 경제를 아울러 중요시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전체적으로 우리 나라 도시민의 환경의식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에 대해서 마이너스 측면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이 높은 환경의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농업의 환경보전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생산 방식을 관행의 농법이 아닌 환경보전형으로 전환시키고, 아울러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뒤따라야만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1 농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 문 항                       | 전체             | 학력별           |                |                | 연령별            |                |               |
|---------------------------|----------------|---------------|----------------|----------------|----------------|----------------|---------------|
|                           |                | 중졸이하          | 고졸             | 대졸             | 30대이하          | 40대            | 50대이상         |
|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226<br>(47.9)  | 18<br>(32.1)  | 84<br>(46.9)   | 124<br>(52.3)  | 55<br>(42.2)   | 153<br>(54.1)  | 18<br>(30.5)  |
|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아울러 끼친다 | 78<br>(16.5)   | 14<br>(25.0)  | 20<br>(11.2)   | 44<br>(18.6)   | 21<br>(16.2)   | 42<br>(14.8)   | 15<br>(25.4)  |
|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             | 121<br>(25.6)  | 18<br>(32.1)  | 58<br>(32.4)   | 45<br>(19.0)   | 40<br>(30.8)   | 63<br>(22.3)   | 18<br>(30.5)  |
| 모르겠다                      | 45<br>(9.5)    | 6<br>(10.8)   | 17<br>(9.5)    | 22<br>(9.3)    | 14<br>(10.8)   | 24<br>(8.5)    | 7<br>(11.9)   |
| 무응답                       | 2<br>(0.4)     | 0<br>(0.0)    | 0<br>(0.0)     | 2<br>(0.8)     | 0<br>(0.0)     | 1<br>(0.4)     | 1<br>(1.7)    |
| 계                         | 472<br>(100.0) | 56<br>(100.0) | 179<br>(100.0) | 237<br>(100.0) | 130<br>(100.0) | 283<br>(100.0) | 59<br>(100.0) |

### 3.2.3. 농업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다음에는 현재 우리 나라 농업이 발휘하고 있는 주요 기능들을 열거한 후 그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역할들을 순서대로 선택하고, 이어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이 어떤 내용이 될 것인지를 질문해 보았다. 조사결과를 보면 현재 농업의 다양한 여러 기능 중에서 첫번째로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국민의 식량공급 기능(77.0%)이었고 두번째로는 생활문화의 창조와 유지기능(26.5%), 자연환경, 국토보전기능(24.1%)을 들고 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사회안정조성의 기능(32.7%)이라고 응답하고 있었다(표 4-12).

한편 앞으로 중요해질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는 자연환경, 국토보전기능(41.4%)이었으며, 두번째로는 쾌적한 생활휴식처 제공(23.1%), 세번째로는 동식물의 유전자원의 보전을 들고 있었다.

이 조사결과를 통해서 보면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하여 응답자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는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다양한 농업의 기능중에 어떤 기능에 중요도를 두고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농업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응답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농업의 역할로는 현재는 식량공급기능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식량공급기능보다는 상대적으로 환경보전기능, 생활휴식처의 역할 등에 더욱 비중이 두어질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보전을 위한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다양한 역할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다방면에서의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3.2.4. 농업에 관한 정보입수 경로

우리 나라 도시민들은 농업이나 농산물에 대한 지식 또는 화제를 주로 TV나 신문에서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중매체의 중요성을 새삼 짐작할 수 있다. 매스컴에서 농업에 대한 보도 시각은 국민들의 의식에 농업을 투영시켜, 농업에 대한 태도를 결정지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4-13).

표 4-12 농업의 주요 역할과 그 변화

| 문항                  | 현재 중요한 역할      |                |                | 앞으로 더 중요해질 역할  |                |                |
|---------------------|----------------|----------------|----------------|----------------|----------------|----------------|
|                     | 제1순위           | 제2순위           | 제3순위           | 제1순위           | 제2순위           | 제3순위           |
| 국민식량공급              | 340<br>(72.8)  | 29<br>(6.3)    | 17<br>(3.8)    | 77<br>(16.9)   | 12<br>(2.7)    | 19<br>(4.3)    |
| 자연환경과 국토보전유지        | 49<br>(10.5)   | 111<br>(24.1)  | 45<br>(9.9)    | 189<br>(41.4)  | 58<br>(12.9)   | 32<br>(7.2)    |
| 쾌적한 생활 휴식처 제공       | 6<br>(1.3)     | 42<br>(9.1)    | 29<br>(6.4)    | 79<br>(17.3)   | 104<br>(23.1)  | 41<br>(9.2)    |
| 타산업 발전에 기여          | 13<br>(2.8)    | 77<br>(16.7)   | 42<br>(9.3)    | 30<br>(6.60)   | 77<br>(17.1)   | 45<br>(10.1)   |
| 생활 문화의 창조와 유지       | 26<br>(5.6)    | 122<br>(26.5)  | 88<br>(19.4)   | 25<br>(5.5)    | 76<br>(16.9)   | 46<br>(10.4)   |
| 국가전체 사회의 안정조성       | 29<br>(6.2)    | 65<br>(14.1)   | 148<br>(32.7)  | 42<br>(9.2)    | 79<br>(17.6)   | 87<br>(19.6)   |
| 동식물의 유지를 위한 유전자원 보전 | 3<br>(0.6)     | 14<br>(3.0)    | 82<br>(18.1)   | 13<br>(2.9)    | 43<br>(9.6)    | 167<br>(37.6)  |
| 기타                  | 1<br>(0.2)     | 0<br>(0.0)     | 2<br>(0.4)     | 1<br>(0.2)     | 1<br>(0.2)     | 7<br>(1.6)     |
| 전체                  | 467<br>(100.0) | 460<br>(100.0) | 453<br>(100.0) | 456<br>(100.0) | 450<br>(100.0) | 444<br>(100.0) |

표 4-13 도시민의 농업 관련 정보 입수 경로

| 정보매체 | 응답자 | 비율(%) |
|------|-----|-------|
| 텔레비전 | 242 | 51.2  |
| 라디오  | 6   | 1.3   |
| 신문   | 131 | 27.7  |
| 잡지   | 4   | 0.8   |
| 서적   | 11  | 2.3   |
| 친지   | 56  | 11.8  |
| 상점   | 9   | 1.9   |
| 기타   | 14  | 3.0   |
| 계    | 473 | 100.0 |

표 4-14 도시민이 보는 매스컴의 농업문제에 대한 태도

| 문           항                                                                      | 응답자 | 비율(%) |
|------------------------------------------------------------------------------------|-----|-------|
|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은 지켜야 한다                                                               | 112 | 23.7  |
| 농업에는 경제적인 기능 이외에도 환경보전의 기능,<br>국토보전의 기능등이 있으므로 가격면에서 국제경쟁력<br>이 낮더라도 전반적으로 보전해야 한다 | 177 | 37.4  |
| 국제경쟁력이 없는 부문은 포기하고 국제경쟁력이 있<br>는 부문에 특화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유리하다고 보는<br>것 같다                | 95  | 20.1  |
| 매스컴에서는 농업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 473 | 18.8  |
| 계                                                                                  | 473 | 100.0 |

이와 관련하여 매스컴에서 농업문제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응답자에게 질문해 봄으로써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인식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농업에는 경제적 기능외에 환경보전의 기능, 국토보전의 기능 등이 있으므로 국제경쟁력이 낮더라도 농업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응답자가 37.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이 지켜져야 한다고 이해하는 응답자가 23.7%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경쟁력이 없는 부문은 포기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부문에 특화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유리하다는 보도시각을 취하는 것 같다는 응답자도 20.1%로 나타났다(표 4-14).

한편 매스컴에서는 농업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보는 응답자도 18.8%나 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매스컴이 농업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업의 유지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그 수준이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농업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거나 그다지 중요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의견도 40%가 되고 있음을 볼 때 농업의 역할에 대하여 매스컴을 통한 홍보가 더욱 요청된다. 이것은 우리나라 농업을 보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매스컴이 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여진다. 대중매체 수단

이 농업에 대한 국민홍보의 중요수단인 만큼 매스콴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 3.3. 농업정책의 우선 순위

농업의 다면적 역할이 충분히 지속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농업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정책은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이 조성되는 만큼 납세자의 생각과 태도는 중요한 정책인 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농민인 도시민들의 농업지원 분야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 농업정책에서 비중을 두어야 할 정책내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농민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41.1%)과 생산기반정책(31.7%)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반면에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생산정책(43.4%)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정책(23.0%)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두고 있다(표 4-15).

표 4-15 도시민이 생각하는 농업정책의 우선순위

| 문           항                | 1 순 위 |       | 2 순 위 |       |
|------------------------------|-------|-------|-------|-------|
|                              | 응답자   | 비율(%) | 응답자   | 비율(%) |
|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 기반 정책 | 150   | 31.7  | 23    | 4.9   |
| 농민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 194   | 41.1  | 78    | 16.5  |
| 생태계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농업정책        | 28    | 5.9   | 55    | 11.6  |
| 농업생산 규모를 확대시켜 생산비를 낮추어       | 91    | 19.2  | 205   | 43.4  |
| 국제 경쟁력이 있는 농업정책              |       |       |       |       |
| 농촌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 8     | 1.7   | 109   | 23.0  |
| 기    타                       | 1     | 0.2   | 1     | 0.2   |
| 무응답                          | 1     | 0.2   | 2     | 0.4   |
| 계                            | 473   | 100.0 | 473   | 100.0 |

이와 관련하여 1994년도에 신설된 농어촌 특별세를 통하여 농어촌발전시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83.1%가 찬성을 하고 있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국제경쟁력을 길러 식량을 자급하기 위해서가 47.8%, 후손에게 물려줄 국토환경보전을 위해서 농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3.1%, 농업이 발전해야 나라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가 11.5%로 나타났다(표 4-16, 표 4-17).

이상과 같이 우리 나라 도시민들은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농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원을 해야하는 이유는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식량자급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는 것에서 우리 나라 도시민들은 농업의 경제적 역할을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 항의 「농업의 역할」에서 식량공급 기능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응답한 것과도 일치하고 있다.

표 4-16 농어촌특별세 신설에 대한 도시민의 태도

|                | 응답자 | 비율(%) |
|----------------|-----|-------|
| 적극 찬성한다        | 189 | 40.0  |
| 찬성한다           | 204 | 43.1  |
|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 48  | 10.1  |
| 반대한다           | 24  | 5.1   |
| 아주 반대한다        | 6   | 1.3   |
| 무응답            | 2   | 0.4   |
| 계              | 473 | 100.0 |

표 4-17 농어촌특별세 신설을 찬성하는 이유

|                                                               | 응답자 | 비율(%) |
|---------------------------------------------------------------|-----|-------|
| 농업이 발전해야 나라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 45  | 11.5  |
| 국제경쟁력을 길러 식량을 자급하는 것이 선진국에 예속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길이므로              | 188 | 47.8  |
| 농업을 유지하는 것이 길이 후손에 물려줄 국토를 보전하고 생태계를 보전하여 인류의 생존에 기여하는 길이 되므로 | 130 | 33.1  |
| 쾌적한 삶을 위해서는 농촌이 유지되어야 하며, 문화적으로도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으므로              | 28  | 7.1   |
| 무응답                                                           | 2   | 0.5   |
| 계                                                             | 393 | 100.0 |

### 3.4. 직업으로서의 농업의 매력

이상에서 도시민들은 농업의 역할을 다양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의 정책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농업의 역할 또는 농업의 중요성은 국민경제 속에서 산업으로서의 농업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사회적인 견지에서 평가한 것이라고 한다면, 직업적인 매력은 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농업에 대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산업으로서 농업을 보는 견해는 직접적이기 보다는 간접적이고, 구체적이기 보다는 피상적이며, 능동적인 자세라기 보다는 수동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농업의 중요도를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개인이 직업으로서 선택하게 되는 구체적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오히려 농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 직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평가일 것이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직업으로서의 농업은 <표 4-18>과 같이 전체 응답자 중 17.1%만이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성향의 원인을 다른 조사항목의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8 도시민이 느끼는 직업으로서 농업에 대한 매력

| 문항         | 응답자 | 비율(%) |
|------------|-----|-------|
| 대단히 매력이 있다 | 19  | 4.0   |
| 꽤 매력이 있다   | 62  | 13.1  |
| 그저 그렇다     | 162 | 34.2  |
| 그다지 매력이 없다 | 163 | 34.5  |
| 전혀 매력이 없다  | 62  | 13.1  |
| 무응답        | 5   | 1.1   |
| 계          | 473 | 100.0 |

표 4-19 도시민이 인식하는 농업소득 수준

| 문    항        | 응답자 | 비율(%) |
|---------------|-----|-------|
| 타산업에 비해 매우 낮다 | 334 | 70.6  |
| 타산업에 비해 약간 낮다 | 122 | 25.8  |
| 타산업과 비슷하다     | 14  | 3.0   |
| 타산업보다 조금 높다   | 2   | 0.4   |
| 타산업보다 월등히 높다  | 1   | 0.2   |
| 계             | 473 | 100.0 |

직업의 선택기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안정된 생활유지의 전제조건으로서 소득면을 보면 (표 4-19)와 같다. 타산업과 비교해 본 농업소득은 70.6%가 매우 낮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25.8%는 타산업에 비해 약간 낮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96.4%가 부정적인 응답을 함으로써 농업이 소득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음이 여실히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동의 강도면에서 농업노동은 92.4%의 응답자가 다른 직업에 비해 힘이 든다고 하였다(표 4-20).

표 4-20 도시민이 인식하는 농업노동 강도

| 문    항       | 응답자 | 비율(%) |
|--------------|-----|-------|
| 대단히 힘들 것 같다  | 297 | 62.8  |
| 꽤 힘들 것 같다    | 140 | 29.6  |
| 무엇이라고 할 수 없다 | 32  | 6.8   |
| 꽤 편할 것 같다    | 0   | 0.0   |
| 대단히 편할 것 같다  | 3   | 0.6   |
| 모르겠다         | 1   | 0.2   |
| 계            | 473 | 100.0 |

표 4-21 직업으로서 농업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

| 문           항                   | 응답자 | 비율(%) |
|---------------------------------|-----|-------|
| 작물을 키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 31  | 21.2  |
| 자연과 친화될 수 있다                    | 27  | 18.5  |
| 조직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능력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42  | 28.8  |
| 공해 없는 자연 속에서 일 할 수 있다           | 28  | 19.2  |
| 자신의 토지를 가질 수 있다                 | 2   | 1.3   |
| 자급자족 할 수 있다                     | 8   | 5.5   |
| 기타                              | 8   | 5.5   |
| 계                               | 146 | 100.0 |

주 : (표 4-18)과 일관되지 않는 응답이 다수 있었으나 이는 직업으로서의 매력은 느끼지 않으면서도 농업의 본질적인 매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에 포함시켰음.

이와같이 소득과 노동의 면에서는 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전체적인 농업의 매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표 4-21)과 같이 4.0%가 대단히 매력이 있다고 하였고, 13.1%는 꽤 매력이 있다고 하여 전체적으로 17.1%의 응답자가 농업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소득과 노동의 측면에서 볼 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매력을 느끼는 이유로는 조직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능력대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기 때문이 가장 많았고(28.8%), 다음이 작물을 키우는 즐거움(21.2%), 공해 없는 작업환경(19.1%), 자연과의 친화 등(18.5%)을 이유로 들고 있다(표 4-21).

표 4-22 직업으로서 농업에 매력을 못 느끼는 이유

| 문           항        | 응답자 | 비율(%) |
|----------------------|-----|-------|
| 힘이 들어서               | 116 | 29.7  |
| 소득이 적어서              | 142 | 36.4  |
| 기후에 따라 생산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 35  | 9.0   |
| 햇볕에 그을리고 흙투성이가 되므로   | 10  | 2.6   |
| 농촌에 살면 문화생활의 혜택이 없어서 | 58  | 14.9  |
| 기타                   | 29  | 7.4   |
| 계                    | 390 | 100.0 |

한편 매력을 못 느끼는 이유는 역시 소득이 적다(36.4%)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힘이 드는 일(29.7%)을 들고 있으며, 농촌에 살면 문화생활의 혜택이 적다(14.9%)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표 4-22).

또한 자녀에게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도록 권유하겠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유하겠다는 응답은 0.6%에 불과하였으나 45.5%의 응답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지원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권유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51.9%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표 4-23).

그러나 45.5%의 응답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는 지원하겠다는 소극적인 지지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직업으로서의 농업이 저소득, 중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으며 자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농업의 매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 농업의 여건은 악조건이지만 농업의 장점을 살리고 조건이 개선될 경우 직업으로서 자녀에게 권해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농업의 장래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22.5%의 응답자가 장래성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사료된다(표 4-24).

표 4-23 자녀의 직업으로서 농업에 대한 태도

| 문항              | 응답자 | 비율(%) |
|-----------------|-----|-------|
| 적극적으로 권유하겠다     | 3   | 0.6   |
| 권유하지 않겠다        | 181 | 38.3  |
| 본인이 희망하면 지원하겠다  | 215 | 45.5  |
|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말리겠다 | 74  | 15.6  |
| 계               | 473 | 100.0 |

표 4-24 도시민이 생각하는 우리 나라 농업의 장래성

| 문항          | 응답자 | 비율(%) |
|-------------|-----|-------|
| 아주 장래성이 있다  | 6   | 1.3   |
| 장래성이 있는 편이다 | 100 | 21.1  |
| 그저 그렇다      | 189 | 40.0  |
| 그다지 장래성이 없다 | 157 | 33.2  |
| 장래성이 전혀 없다  | 20  | 4.2   |
| 무응답         | 1   | 0.2   |
| 계           | 473 | 100.0 |

### 3.5. 바람직한 농촌상

직업으로서의 농업의 조건에 대해서 도시민들은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농촌에 기대하는 역할내용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바람직한 농촌상을 질문해 본 결과 인정이 풍부하고 전통적인 풍속이 남아 있는 곳이 24.9%로 가장 많은 응답내용이었다. 다음은 아름다운 자연과 전원풍경이 보전되고 휴양할 수 있는 곳(18.4%), 각종 지역특산품이 생산되는 곳(14.6%)으로 나타났다(표 4-25).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역할과는 달리 농촌에 대한 이미지는 경제적 역할보다는 환경보전적 역할, 생활문화적 역할이 더 크게 기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인정이 풍부하고 전통적인 풍속이 남아 있는 농촌이기를 기대하고 있음은 농민들의 성격에 대한 도시민들의 인식과도 밀접한 것으로 보인다. 즉, 도시민들은 농민이 근면하고, 정직하며, 심성이 순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할 뿐만 아니라 예의와 조상숭배를 중시하는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4-25 도시민이 기대하는 바람직한 농촌상

| 문           항                    | 응답자   | 비율(%) |
|----------------------------------|-------|-------|
| 먹거리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곳                 | 97    | 8.2   |
| 각종 지역 특산품이 생산되는 곳                | 172   | 14.6  |
| 공장도 있고 농업외에 여러가지 산업이 전개되는 곳      | 57    | 4.8   |
| 전원주택에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곳            | 117   | 9.9   |
| 노후의 생활에 적합한 곳                    | 103   | 8.7   |
| 아름다운 자연과 전원풍경이 보전되고 휴양에 도움이 되는 곳 | 217   | 18.4  |
| 스키, 낚시, 골프등 야외스포츠에 편리한 곳         | 4     | 0.3   |
| 재해를 막고 수원을 지키는 기능이 있는 곳          | 107   | 9.1   |
| 인정이 풍부하고 마을 축제등 전통적인 풍속이 남아 있는 곳 | 293   | 24.9  |
| 개인 생활을 서로 간섭하지 않는 곳              | 9     | 0.8   |
| 기타                               | 3     | 0.3   |
| 계                                | 1,179 | 100.0 |

주: 응답은 복수응답임.

표 4-26 우리 나라 농민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

| 문           항                              | 긍           정 |       | 부           정 |       |
|--------------------------------------------|---------------|-------|---------------|-------|
|                                            | 응답자           | 비율(%) | 응답자           | 비율(%) |
| 농민은 근면하고 정직하게 살아가 본받을<br>점이 많다             | 397           | 83.9  | 76            | 16.1  |
| 농민은 자연과 친화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심<br>성이 순박하다         | 395           | 83.5  | 78            | 16.5  |
| 농민은 현실에 안주하여 보수적인 성격이 강<br>하다              | 272           | 57.5  | 201           | 42.5  |
| 농민은 공동체적인 생활을 통한 상부상조의<br>협동정신이 강하다        | 403           | 85.2  | 70            | 14.8  |
| 농민은 예의와 조상숭배를 중시하는 등 전통<br>문화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 402           | 85.0  | 71            | 15.0  |

주 : 부정에는 모르겠다, 또는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가 포함되어 있음.

또한 농촌생활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의향을 질문한 결과 31.9%가 생활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가끔씩 찾고 싶다는 응답자도 63.6%로 나타나 농촌은 도시민의 생활에서 있어야 할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농촌에서 생활하고 싶다는 응답자의 경우 그 시기는 특정하게 언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언제인가는 농촌에 살고 싶다는 의견(56.2%)과 함께 정년퇴임후에는 농촌에서 살고 싶다는 의향도(7.1%) 있었다. 이 같이 농촌에서 살고 싶은 이유로는 자연 속에서 생활하고 싶다(65.8%)는 것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은 것(17.6%)으로 나타나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생활로부터 농촌의 여유를 갈구하는 계층이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조사결과였다(표 4-27).

이같은 조사결과를 통해서 볼 때 도시민들은 농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또는 막연하게나마 돌아가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으로 인식하면서도 직업으로서의 농업, 현실 생활의 근거지로서의 농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현상은 농업에 대한 직업으로서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농촌의 문화적 조건이 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표 4-27 도시민이 농촌에서 생활하고 싶은 이유

| 문           항               | 응답자 | 비율(%) |
|-----------------------------|-----|-------|
| 자신이 농업을 경영하고 싶다             | 14  | 4.7   |
| 자연 속에서 생활하고 싶다              | 198 | 65.8  |
| 마을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         | 8   | 2.7   |
| 인정이 많은 곳에서 생활하고 싶다          | 20  | 6.6   |
|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  | 53  | 17.6  |
| 땅값이 도시보다 싸므로 넓은 주택을 가질 수 있다 | 5   | 1.7   |
| 기타                          | 3   | 1.0   |
| 계                           | 301 | 100.0 |

야 할 것이다. 도시민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농촌상은 결국 농업의 다면적인 본질적 가치인식의 발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4. 조사결과 요약 및 함의

본 조사의 분석결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산업으로서 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의식이라는 측면과 둘째, 직업으로서 개인이 느끼는 농업의 매력이라는 측면이다.

산업으로서 농업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와 농업의 역할 내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산업으로서의 중요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92.3% 수준이었으며 그 중에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인정하는 응답은 50% 수준에 불과하였다. 농업의 역할은 다양한 기능 중에서 식량공급 기능을 비롯한 경제적 역할이 가장 중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장래에는 환경보전적 역할, 사회문화적 역할 등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경보전적 역할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7.9%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한편 직업으로서의 농업은 저소득, 중노동의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업에 매력을 느끼는 도시민들도 소수이긴 하지만 나타나고 있어서 자유롭고 자연 친화적인 농촌생활을 동경하는 현대 도시민의 욕구가 증대될수록 농촌에 기대하는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해서 볼 때 농업의 역할내용이 구체적으로 부각되어 사회적으로 인식되지 않으면 직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 속에 농업의 가치가 그대로 매몰되어 농업을 유지 보전해야 한다는 실천의지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농업의 역할을 구체화시키는 계획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농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를 부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직업으로서의 농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작업이 아울러 요구된다. 그렇게 될 때만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지원이 국민적 합의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 제 5 장

# 국민학교 교과서의 농업에 관한 기술내용 분석

### 1. 교과서 분석의 의의와 분석 내용

이미 앞에서 농업의 본원적 가치와 역할·기능에 관한 규명을 통하여 농업이 경제산업으로서, 환경·생명산업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가치 있는 산업임을 개진하였다. 더불어 농업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그 사회가 처한 경제·사회적 발전수준이나 상황여건에 따라 다르게 투사되고 있음도 살펴보았다.

그러나 농업의 본원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가치체계가 어떻게 나타나든지 간에 농업이 지닌 본원적 가치나 작용하는 역할·기능을 고려할 때 농업은 여전히 그 존재에 대한 의의를 인정받고 또 가치있는 산업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각된 의식을 가지도록 함이 중요하다.

농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농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체계를 형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학교교육, 사회교육, 또는 매스컴을 통한 홍보나 현장을 통한 직접경험 등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 중에서도 초등

교육기에 있는 아동들에게 실시하는 학교교육은 이들의 세계관 및 인간관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농업관의 형성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는 없다. 특히 초등교육기에 있는 아동들에게 있어서 교과서는 정보원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국민학교 단계는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과서에 기술된 농업의 내용에 대한 의도적 또는 무의도적인 교육력은 이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와 농업관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관점에서 국민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농업에 관한 교육이 어떠한 주제하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농업에 대해 어떠한 내용의 가치부여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농업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사회교과서를 이용하였고 분석방법은 농업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문장이나 문의의 내용을 파악하는 내용분석을 하였다.

## 2. 농업관련 내용의 취급 비중과 연도별 추이

국민학교 3~6학년 사회교과서에서 농업관련 내용이 어떠한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그것들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되었나를 장·절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5-1)과 같다.

1972학년도 3~6학년의 1,2학기 교과서의 총 장 및 절 수는 각각 31개 장과 111개 절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농업을 주제로 한 장과 절 수는 각각 2개 장과 15개 절로서 전체 장, 절 수에 대한 구성비율은 각각 6.5%와 13.5%이었다.

그러나 1983학년도에는 31개 장과 79개의 절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에서 농어업을 주제로 한 장과 절은 1개와 6개로 전체에 대한 비율은 각각 3.2%와 7.6%이었다.

표 5-1 연도별 전체 장·절수와 농업관련 장·절수 비교

|                       |             | 1972          |               |                                   |                                   |      |      | 1983          |               |                                   |                                   |     |      | 1993          |               |                                   |                                   |     |     |
|-----------------------|-------------|---------------|---------------|-----------------------------------|-----------------------------------|------|------|---------------|---------------|-----------------------------------|-----------------------------------|-----|------|---------------|---------------|-----------------------------------|-----------------------------------|-----|-----|
|                       |             | 장<br>수<br>(A) | 절<br>수<br>(B) | 농<br>업<br>주<br>제<br>장<br>수<br>(C) | 농<br>업<br>주<br>제<br>절<br>수<br>(D) | C/A  | D/B  | 장<br>수<br>(A) | 절<br>수<br>(B) | 농<br>업<br>주<br>제<br>장<br>수<br>(C) | 농<br>업<br>주<br>제<br>절<br>수<br>(D) | C/A | D/B  | 장<br>수<br>(A) | 절<br>수<br>(B) | 농<br>업<br>주<br>제<br>장<br>수<br>(C) | 농<br>업<br>주<br>제<br>절<br>수<br>(D) | C/A | D/B |
|                       |             |               |               |                                   |                                   |      |      |               |               |                                   |                                   |     |      |               |               |                                   |                                   |     |     |
| 3<br> <br>6<br>학<br>년 | 1<br>학<br>기 | 15            | 59            | 2                                 | 11                                | 13.3 | 18.6 | 16            | 44            | 1                                 | 6                                 | 6.3 | 13.6 | 14            | 41            | -                                 | 2                                 | -   | 4.9 |
|                       | 2<br>학<br>기 | 16            | 52            | -                                 | 4                                 | -    | 7.7  | 15            | 35            | -                                 | -                                 | -   | -    | 13            | 39            | 1                                 | 2                                 | 7.7 | 5.1 |
|                       | 계           | 31            | 111           | 2                                 | 15                                | 6.5  | 13.5 | 31            | 79            | 1                                 | 6                                 | 3.2 | 7.6  | 27            | 80            | 1                                 | 4                                 | 3.7 | 5.0 |

또한 1993학년도에 사회교과서는 27개 장과 80개 절로 구성되었고, 이 가운데 농업을 독립주제로 한 장과 절 수는 각각 1개와 4개로서 전체 장·절에 대한 비율은 각각 3.7%와 5.0%이었다.

이처럼 1972학년도에 비해 1993학년도에는 농업을 독립주제로 한 장과 절의 수가 각각 1개와 11개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감소의 원인은 1972학년도에는 산림녹화를 독립된 장으로, 그리고 산, 들, 바다와 농촌지도소 및 협동조합을 독립된 절로 하였으나 1983학년도부터 산림녹화를 농림수산업의 장에, 그리고 산, 들, 바다는 여러 마을의 생활이란 장에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 3. 농업관련 내용의 연도별 주제

국민학교 교과과정에서 농업이 어떤 내용을 주제로 하여 다루어지고 있

는 가를 보여주는 것이 (표 5-2)이다.

이에 의하면 1972학년도에는 3·4학년의 교과과정에서만 농업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3학년에서는 농업을 독립 장으로 하여 취급하지는 않았지만 들에서 나는 것, 바다에서 나는 것, 산에서 나는 것, 농촌지도소, 협동조합, 농촌의 생활, 산촌의 생활, 어촌의 생활을 각각 절의 주제명으로 하였다. 이러한 절의 주제를 통하여 우리가 먹는 식료 및 생활물자가 어디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농촌지도소 및 협동조합의 농업과 관련된 역할과 기능 그리고 농어산촌의 생활상을 설명해 주고 있다.

4학년에서는 농업의 발달과 산림녹화를 독립된 장의 주제로 하였다. 또한 농사의 시초와 농구의 변천, 발전하는 농업, 산림과 우리 생활, 우리 나라 산림의 모습, 산림 녹화, 풍부한 농산물과 수산물을 독립된 절의 주제로 하였다. 이러한 장과 절의 주제를 통하여 농업 및 농구의 발달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산림의 우리생활에 있어서의 중요성과 그에 따라 산림녹화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

1983학년도에는 3·4·5학년의 교과과정에서 농업을 다루고 있었다. 3학년에서는 여러 마을의 생활을 독립 장의 주제로 하고 여기에서 여러 마을의 모습과 여러 마을 사람들의 생활을 독립된 절로 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를 통하여 농어촌 마을의 일반적 모습과 농어촌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상과 그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4학년의 교과과정에서는 농업을 독립 장의 주제로는 하지 않았지만 평야지역의 생활, 해안·도서지역의 생활, 산간지역의 생활을 독립 절의 주제로 하였다. 그러나 이들 절에서 실제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각 지역의 입지환경적 특징과 지리적 분포상태 및 생활의 특색 등 주로 인문지리학적인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을 뿐 농어업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빠져 있다.

5학년의 교과과정에서는 우리 나라의 산업이란 독립 장 속에 농림수산업을 하나의 독립된 절로 하고 농업, 축산업, 임산자원, 산림녹화와 수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표 5-2 연도별 농업관련 장·절의 주제명

|     | 1972                                                         |                                                                                                                   | 1983             |                                                     | 1993*                                                    |                                                                                                                            |
|-----|--------------------------------------------------------------|-------------------------------------------------------------------------------------------------------------------|------------------|-----------------------------------------------------|----------------------------------------------------------|----------------------------------------------------------------------------------------------------------------------------|
|     | 장의 주제명                                                       | 절의 주제명                                                                                                            | 장의 주제명           | 절의 주제명                                              | 장의 주제명                                                   | 절의 주제명                                                                                                                     |
| 3학년 | (○ 고장에서<br>나는 것)<br><br>(○ 좋아하는<br>우리고장)<br>(○ 여러고장<br>의 생활) | ○ 들에서 나<br>는 것<br>○ 바다에서<br>나는 것<br>○ 산에서 나<br>는 것<br>○ 농촌지도소<br>○ 협동조합<br>○ 농촌의 생활<br>○ 산촌의 생활<br>○ 어촌의 생활       | ○ 여러마을<br>의 생활   | ○ 여러마을의<br>모습<br>○ 여러마을<br>사람들의 생<br>활              | (○ 여러고장<br>의 모습과<br>생활)                                  | ○ 촌락의 모<br>습과 생활<br>○ 촌락과 도<br>시의 다른 점                                                                                     |
| 4학년 | ○ 농업의<br>발달<br><br>○ 산림녹화<br><br>(○ 우리나라<br>남부지방의<br>생활)     | ○ 농사의 시<br>초와 농구의<br>변천<br>○ 발전하는<br>농업<br>○ 산림과 우<br>리생활<br>○ 우리나라<br>산림의 모습<br>○ 산림녹화<br>○ 풍부한 농<br>산물과 수산<br>물 | (○ 여러지역<br>의 생활) | ○ 평야지역의<br>생활<br>○ 해안·도서<br>지역의 생활<br>○ 산간지역의<br>생활 | (○ 강 유역<br>의 생활)<br>(○ 산간지역<br>의 생활)<br>(○ 해안지역<br>의 생활) | (○ 한강유역,<br>금강유역,영<br>산강과 섬진<br>강 유역, 낙<br>동강 유역,<br>압록강과 대<br>동강 유역)<br>(○ 개마고원,<br>태백산맥,<br>소백산맥)<br>(○ 황해안,남<br>해안,동해안) |
| 5학년 |                                                              |                                                                                                                   | (○ 우리나라<br>의 산업) | ○ 농림수산업                                             | ○ 농수산업<br>과 광공업                                          | ○ 농업과 축<br>산업<br>○ 임업과 수<br>산업                                                                                             |

\* 1993년 4학년 과정은 주로 지형·지세의 설명 등 지리학적 관점에서의 기술내용으로 제외시켰음.

1993학년도도 1983학년도와 같이 3·4·5학년 과정에서 농업을 다루고 있  
다. 그러나 3학년 과정에서는 여러 고장의 모습과 생활이란 독립된 절 속에

서 촌락의 모습과 생활 및 촌락과 도시의 다른 점을 절의 주제명으로 하여 농촌, 산촌, 어촌의 모습과 농촌, 어촌, 산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활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4학년 과정에서는 강유역의 생활, 산간지역의 생활, 해안지역의 생활을 장의 주제명으로 하고 있으나 여기서 실제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주로 각 지역의 지형, 지세의 설명과 생활의 특색 등을 인문지리학적 관점으로 다루고 있을 뿐 농업과의 직접적인 관련 내용은 거의 없다.

5학년 과정에서는 농림수산업과 광공업을 독립된 장의 주제로 하고 그 속에 농업과 축산업, 임업과 수산업을 독립된 절로 하여 농업의 발달과 주요 농산물의 종류 및 그 주산지, 농업발전을 위한 활동과 노력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 4. 농업에 대한 취급빈도와 기술 내용

교과서는 문장·문의, 도표에 의한 통계적 요소, 지도·그림·사진에 의한 시각적 요소로 구성되며, 그 배분량이나 출연회수가 취급빈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의 취급빈도는 단지 농업을 언급한 문장·문의의 언급회수를 나타낸다.

농업에 대한 기술내용은 크게 농업의 역할, 영역, 주체의 3가지 측면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농업의 역할은 식료, 산업, 환경보전, 휴양지, 생활문화로 농업의 영역은 기술, 경제, 생활분야로, 농업의 주체는 농민개인, 농촌주민, 행정기관 및 단체로 구분하고 이들에 대해 언급한 문장·문의의 회수와 내용을 검토하였다.

우선 연도별 농업에 대한 취급빈도를 보여주는 것이 (표 5-3)이다. (표 5-3)에서 보면 1973학년도에는 농업의 역할을 식료생산과 산업으로서의 역할에 편중하여 취급하였다. 영역별 취급빈도는 경제보다는 기술이나 생활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표 5-3 연도별 교과서에서의 농업기술빈도

|      | 농의 역할 |     |          |     |          | 영역  |    |     | 담당자      |          |           |
|------|-------|-----|----------|-----|----------|-----|----|-----|----------|----------|-----------|
|      | 식료    | 산업  | 환경<br>보전 | 휴양지 | 생활<br>문화 | 기술  | 경제 | 생활  | 농민<br>개인 | 농촌<br>주민 | 행정·<br>단체 |
| 1972 | ○○○   | ○○○ | ○        | ○   | ○        | ○○○ | ○  | ○○○ | ○○       | ○○○      | ○○○       |
| 1983 | ○○○   | ○○  | ○○○      | ○   | ○        | ○○○ | ○  | ○○○ | ○○       | ○○○      | ○○○       |
| 1993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기술빈도는 교과서의 농업관련 문장, 문구의 언급회수로 판단하였음.

2) ○○○ 언급빈도 많음, ○○ 언급빈도 중정도, ○는 언급빈도가 적은 것을 나타냄.

농업주체에 있어서는 농민개개인 보다는 농촌주민이나 행정기관 및 단체에 대한 취급빈도가 높았다. 이와 같은 취급빈도는 1983학년도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1993학년도에서는 농업주체에 대한 취급빈도는 많았지만 농업의 역할이나 영역에 대한 취급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았고, 1973학년도 및 1983학년도와 비교해 볼 때는 더욱 낮았다.

이러한 취급빈도는 농업에 대한 기술내용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취급빈도가 비교적 많은 항목의 특징적인 부문에 한정하여 기술내용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농업의 기본적 역할 가운데 식료나 식품은 들, 산, 바다, 강과 같은 자연을 이용하여 농민이 생산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1972, 1983, 1993학년도). 따라서 식료나 식품이 생명을 지탱해 주는 귀중한 것이라는 관점이 부각되지 못하고 단순히 자연을 이용하여 생산된다는 정도로 기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것은 화학비료, 농약의 다량 투입에 수반되는 지력저하, 잔류농약 오염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1983, 1993학년도의 교과서에 기술되고 있다.

산업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농업은 식료나 식량을 생산하고(1972학년도)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1983학년도)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으나 1993학년도의 교과서에서는 농업은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에 가장 관계

가 깊기 때문에 어떤 산업보다도 중히 여겨왔다는 추상적인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농업의 기본적 영역중에서 기술면에 대한 논급이 많았다. 1972학년도에서는 식량증산을 위해서는 시비법, 병충해 방지, 품종개량 등의 농사법 개선의 필요성을 기술하였기 때문이었다. 1983학년도에는 농사짓는 데에 경운기, 이앙기 등의 농기계를 이용하고,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음을 기술한 데 있었다. 1993학년도에서는 농기계를 이용하고, 종자개량과 비료, 농약 등을 사용하여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는 현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술면에 대한 언급은 현상에 대한 설명내지 농사기술의 필요성을 논급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고 농사에 이용하고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술내용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생활면에 관한 취급빈도가 많은 것은 농촌, 산촌, 어촌 사람들의 농어업 생산활동상에 대한 논급이 많았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농촌에서의 생활은 상부상조와 협동에 의해 농사일 뿐만 아니라 애경사에 협조하며, 더욱 잘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농업주체에 대한 논급에서 특징적인 사항은 농가 및 마을주민은 농사일에 서로 협동하며, 식량생산을 위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식의 기술은 농촌주민의 부지런함과 근면성을 부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장기간 노동을 하므로 농사일이나 농촌에 사는 것은 힘들겠다는 부정적 인상을 심어줄 우려도 있다. 농촌지도소,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과 같은 농업유관기관에 대해서는 농업과 관련된 이들 기관의 역할 기능과 이들 기관이 농사를 비롯한 농업생산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끝으로 농촌생활 여건은 도시에 비해 교통이 불편하고 의료기관 및 교육시설과 오락시설이 부족하여 살기에 좋지 못한 곳이라는 식의 기술을 하고 있었고, 특히 산촌에 대한 설명에서는 더욱 그러했다(1972학년도).

## 5. 농업의 주요 영역별 상황 설명과 가치 부여

국민학교 사회교과서에 기술된 농업에 관한 상황설명과 가치부여 내용의 주요골자를 정리한 것이 (표 5-4)이다. (표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도별 농업에 대한 상황설명 및 가치부여의 주요내용과 그것들의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을 영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5.1. 식료생산의 역할

1972학년도에는 식료는 농촌에서 농민들이 들, 산, 바다 등의 자연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기술하고 따라서 들, 산, 바다 등을 잘 이용토록 하며, 나아가 식료를 아끼고 이것을 생산한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983학년도에서는 식료를 비롯하여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의 대부분은 농민들이 들, 산, 바다, 강 등의 자연에서 얻어내거나 길러낸 것으로 자연을 더욱 잘 이용하고 나아가 가꾸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 가치를 부여했다.

1993학년도에서는 식료나 생활물자는 자연의 이용을 통해 얻어지고 있고, 이들 식료 중 쌀 이외의 잡곡은 외국에서 수입도 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나아가 바다는 수산자원과 지하자원을 얻고 있다. 따라서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는 자연을 잘 이용하고 나아가 해양자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데에 가치를 부여하였다.

이상의 살펴 본 내용을 정리하면 1973학년도와 1983학년도에 비해 1993학년도에서는 자연을 단지 식료나 생활물자의 획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생활의 영위를 위해 더 잘 이용해야 하며 또한 바다도 해양자원의 개발이란 측면에서 이용해야 한다는 데에 가치를 부여했다.

표 5-4 연도별 농업에 대한 주요 부문별 가치부여

|                       | 1972                                                                        |                                                                                                                | 1983                                                                          |                                                                | 1993                                                                      |                                                                            |
|-----------------------|-----------------------------------------------------------------------------|----------------------------------------------------------------------------------------------------------------|-------------------------------------------------------------------------------|----------------------------------------------------------------|---------------------------------------------------------------------------|----------------------------------------------------------------------------|
|                       | 상황설명                                                                        | 가치부여                                                                                                           | 상황설명                                                                          | 가치부여                                                           | 상황설명                                                                      | 가치부여                                                                       |
| 식료생산                  | ○ 농어촌에서 농민들이 들 산 바다 등의 자연의 이용을 통해 생산함                                       | ○ 들 산 바다 등을 잘 이용<br>○ 식료를 아끼고 생산한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 가짐                                                               | ○ 우리생활에 필요한 것들의 대부분은 들 산 바다 가, 등의 자연에서 얻거나 길러낸 것임                             | ○ 자연을 더욱 잘 이용하고 기쁘도록 해야 함                                      | ○ 자연을 이용하여 식료나 생활필수품을 얻고 있음<br>○ 해외와의 접촉은 외국에서 수입<br>○ 바다는 수산자원 및 지하자원 얻음 | ○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자연을 이용토록 함<br>○ 해양자원 개발은 매우 중요                               |
| 산 업                   | ○ 농업은 인구절반이 종사하며 식량을 얻기 때문에 여러산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산업임<br>○ 우리나라는 목축을 크게 하는 곳이 적음 | ○ 우리살림을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산업과 함께 농업을 발전시켜야 함<br>○ 농도확장, 경지정리, 저수지 등을 만들어야 함<br>○ 농지부족지는 목장으로 개발하고 축산업 발전에 노력해야 함 | ○ 농업은 예로부터 으뜸가는 산업으로 여겨왔고 광업과 함께 경제발전에 중요한 몫을 하고 있음<br>○ 유류도 곡식 못지 않은 중요한 식량임 | ○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농업의 중요성이 더 해지고 있음<br>○ 농도를 이용하여 축산업 발전에 노력해야 함 | ○ 농업은 "천하에서 제일 으뜸가는 일"<br>○ 고기와 후우 소비증가로 목장이 생기고 축산업 발달                   | ○ 농지확장, 경지정리 수시시설 필요                                                       |
| 환경보전<br>및<br>휴 양 지    | ○ 산은 생활물자와 홍수예방 등 환경보전 및 휴양지 제공<br>○ 산지면적은 많으나 산림면적은 좁고 벌거숭이 산이 많음          | ○ 산림녹화에 힘써야 함                                                                                                  | ○ 산림은 생활물자와 가목과 홍수를 예방하고 경치를 아름답게 함<br>○ 산림발달에 따라 농약피해, 수자원 고갈 등 공해문제 발생      | ○ 산림녹화에 힘써야 함<br>○ 강들은 자연보호와 보전에 힘을 기울여야 함                     | ○ 식림과 육림은 산상태와 가목 및 홍수예방<br>○ 식량증산을 위한 농약 비료과목은 농산물과 물을 오염시킴              | ○ 산지를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하는 일이 필요<br>○ 자연의 개발보호와 환경보호가 필요<br>○ 농약과 비료의 적절한 사용이 필요함 |
| 생 활                   | ○ 교통불편등으로 살기에 나쁨                                                            | ○ 새로운 생활방식을 받아들여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약함                                                                                 | ○ 집을 새로 짓고 전기와 수도가 들어오고 교통도 편리해짐                                              | ○ 편리하고 살기좋은 고장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함                                 |                                                                           |                                                                            |
| 기 술                   | ○ 논 농사와 밭 농사를 주로 함                                                          | ○ 농기계 사용, 농사법 개량이 되어야 함                                                                                        | ○ 경운기 등 농기계 사용하는 농가가 늘어나<br>○ 비닐하우스에서 겨울철에도 농사 지음                             | ○ 농사짓는데도 기술이 필요하므로 농사기술에 많은 연구가 필요함                            | ○ 기계이용, 종자개량 비료 농약 등 사용으로 실 좋은 농산물 생산                                     | ○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                                                  |
| 농촌주민                  | ○ 산 들 바다에서 열심히 일함<br>○ 마음씨가 착하고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살아감                             | ○ 농촌주민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함                                                                                           | ○ 더 많은 생산물을 얻기 위해 농사기술 익히고 채소종사도 많이 함<br>○ 힘을 모아 농사일을 서로 도우며 사이 좋게 살고 있음      | ○ 농촌주민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함                                           | ○ 이웃의 사정을 잘 알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있음<br>○ 농사를 잘 짓고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함           | ○ 농촌주민은 근면하고 부지런함                                                          |
| 단 당 자<br>행정기관<br>및 단체 | ○ 농사기술 보급, 농가의 생산물건 팔아주고 농가에 필요한 물건 싸게 구입해주는 등 농사와 농민생활에 도움을 줌              | ○ 조합은 우리조합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과 힘을 합쳐 키워나 가야 함                                                                        | ○ 조합은 농산물을 모아 큰 도시로 내다 팔고 농가비로 공동구입, 영농자금 빌려주며 농사기술 알려주는 등 농사와 농민에게 도움        | ○ 농·수협등을 잘 이용하고 육성시켜야 함                                        | ○ 농협·수협·농촌지도소 등 기관단체는 농민들이 농사를 더 잘 짓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줌                         | ○ 농·수협등을 잘 이용하고 육성시켜야 함                                                    |

## 5.2. 산업으로서 역할

1972학년도에는 농업은 인구절반이 종사하며 농업을 통해 식량을 얻기 때문에 식량 산업적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우리 살림을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산업과 더불어 농업을 발전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농지확장, 경지정리, 저수지 등을 만들어 증산해야 한다는 데에 가치를 부여하였다. 한편 1972학년도에서는 목축업을 크게 하지 못하므로 농지부적지는 목장으로 만들어 축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983학년도에서는 농업은 예로부터 으뜸가는 산업으로 광공업과 함께 경제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육류를 곡식못지 않게 중요한 식량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는 농업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으며, 노는 땅을 이용하여 축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에 가치를 부여하였다.

1993학년도에서는 농업을 천하에서 제일 으뜸 가는 일로 보았고 고기와 우유 소비증가로 목장도 생기고 축산업도 발달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확장이나 경지정리나 수리시설의 필요성에 가치를 부여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의 산업적 역할에 대한 설명에서 큰 변화는 1993학년도에서는 농업을 단지 천하에서 제일 으뜸가는 일로 설명하면서 농업을 위해서는 농지확장, 경지정리, 수리시설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전과는 달리 축산업이 발달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었다.

## 5.3. 환경보전 및 휴양지

1972학년도에는 산은 생활물자를 얻고 홍수예방 등 환경보전에도 도움이 되며 휴양지를 제공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지면적은 많으나 산림면적은 좁고 벌거숭이 산이 많으므로 산림녹화에 힘써야 한다는 데에 가치를 부여하였다.

1983학년도에는 산림의 중요성에 따른 산림녹화의 필요성 이외에 산업발

전과 농약사용에 의한 오염으로 인한 수자원의 고갈 및 공해문제 발생을 설명하고 강물 등 자연보호와 보전에 가치를 부여하였다.

1993학년도에도 식림과 육림은 홍수, 가뭄 및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예방함으로 산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식량증산을 위한 농약, 비료의 과용은 농산물과 물을 오염시킴으로써 농약과 비료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나아가 자원보호 및 환경보호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3학년도부터는 산업발전과 농약, 비료 등의 과다한 사용에 의한 환경오염과 공해발생 문제를 기술하고 나아가 자연보호와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였다.

#### 5.4. 생활면

1972학년도에는 농촌은 교통불편으로 살기에 나쁜 곳이며, 농촌주민들은 새로운 생활방식을 받아들여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약하다라고 부정적 측면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1983학년도에는 농촌은 집도 새로 짓고, 전기와 수도가 들어오고 교통도 편리해진 모습으로 기술하고 나아가 편리하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 같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1993학년도에는 이와같은 생활면에 관한 설명이 없었다.

#### 5.5. 기 술

1972학년도에는 농업을 별다른 기술없이 논농사와 밭농사를 주로 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농기계를 사용하고 농사법이 개량되어야 한다는 점에 가치를 부여했다.

그러나 1983학년도에는 경운기, 이앙기 등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가가 늘어났고 겨울철에도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농사짓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함으로 농사기술에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1993학년도에는 농기계 이용, 종자개량, 비료, 농약 등을 사용하여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3학년도에는 농업이 주로 논농사와 밭농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1983학년부터는 각종 농기계를 이용하고 비닐하우스 농사도 이루어지며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을 정도로 농사기술이 발전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 5.6. 농촌주민

1972학년도부터 1993학년도에 이르기까지 농촌주민은 산, 들, 바다에서 열심히 일하고, 마음씨도 착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있다고 기술함으로써 농촌주민의 근면성과 부지런함에 가치성을 부여하고 있다.

## 5.7. 행정기관 및 단체

1972학년도부터 1993학년도에 이르기까지 농촌지도소,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행정기관이나 농업유관단체들은 농사기술을 보급하고,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주고 또 농가에서 농사에 필요로 하는 물건을 싼 값으로 구입해 주고, 농사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 등 농사와 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들 기관을 더욱 잘 이용하는 한편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을 우리 조합으로 알고 나아가 이들 기관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 6. 농업관련 기술 내용의 한계와 개선

1993학년도 사회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농업관련 기술내용의 한계와 그 개선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993학년도 교과서는 5차 개정에 의해 3·4학년 교과서는 1989년에 5·6학

년 교과서는 1990년에 출판되었다. 그러나 교과서가 집필에서 출판되기까지는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1993학년도 교과서의 내용은 적어도 1987년 전후의 농업상황과 여건에 기초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1993학년도의 교과내용에는 지난 1986년부터 개시되면서 큰 파문이 예상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즉 우루과이라운드가 무엇이고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어 농산물 수입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어떤 상황이 예상되고, 따라서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또한 5학년 2학기 사회과 탐구 2장 「농수산업과 광공업」에 나오는 각 지역에 알맞은 농작물의 경우도 개성인삼을 소재목으로 정하고 있는 데 차라리 금산인삼이나 강화인삼으로 소재목을 정하고, 우리 인삼의 우수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 또한 교과서에 기술한 내용이 급변하는 농업여건과 상황을 이해시키는 데에 뒤떨어진 점들이 적잖았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학교 교과서에서의 농업에 대한 교육내용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에 따른 국제농업 환경의 변화와 앞으로 태풍의 눈으로 다가올 그린라운드의 파급효과에 대비하고, 농업에 대한 가치와 신념을 배양하여 미래 농업에 대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교육내용으로는 농업의 중요함을 농업이 지닌 본원적 가치와 역할·기능적 측면에서 조명되도록 하면서 농업에 대한 철학적 사고력을 길러주고 나아가 주곡인 쌀의 우수성, 농업의 역사, 환경과의 관계, 생명과의 관계, 식량문제 등에 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 제 6 장

#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1. 농업의 다면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

근대 이후 인류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 온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오늘날 생태환경이 교란되고 각종 공해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인간의 생명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자연생태계 회복은 인류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다. 경제우선의 공업생산의 논리보다는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의 논리가 중시되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농업은 공업에 비해 환경보전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플러스 외부효과가 큰 경제부문이다. 따라서 농업의 포기는 외부효과와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농업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폭넓게 인식되어야 하며 아울러 환경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농업론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은 식생활을 근간으로 생활가치를 내포하고 있음은 거듭 강조된 바와 같다. 그러나 농업이 사회문화적 역할을 발휘하고 그속에서 생활가치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농업의 양태가 보다 다각화되어야 한다. 생활가치는 국민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서만이 체득될 수 있는 가치

이기 때문이다.

농업의 다각화는 공업과의 공존에서 모색될 수 있다. 일찌기 폴라니는 문명사회는 시장경제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활세계를 파괴하여 인간적인 생을 제약하는 사회로 보았다. 즉, 시장사회는 본래 다양한 존재인 인간의 모든 면을 경제만으로 재단하는 경제결정론적인 사회로서 인간의 생의 본질적 가치가 억압되어 버린다고 하였다. 따라서 광의의 사회 속에 경제를 매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농업과 공업의 결합, 도시와 농촌을 결합시키는 사상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祖田修, 1994).

또한 크로포토키는 근대사회가 농·공 분리와 「분업」에 의해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였으나 다른 한편 많은 것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결합」의 사회적 이익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상적인 사회를 각자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양쪽에 종사하는 사회」로 보았으며 「농업과 공업, 전원노동과 지방화된 공업을 결합시키는 수단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된다……사회 각 성원은 전원의 농부임과 동시에 공장노동자이며, 각 개인은 과학적 지식과 공예의 지식을 자기 안에 결합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문명국민의 회구이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영국의 하워드, 독일의 슈미트의 전원도시론, 산업 생활 전원도시론으로 전개되어 지역계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祖田修, 1994).

인간은 본래 24시간의 생활 속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즐기는 기본적 욕구를 가진 존재라고 볼 때,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생활환경은 경제합리성만을 계속 추구하는 한 더욱 파괴될 뿐이다. 결국 인간의 생활가치만을 최고로 추구할 수 없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는 경제가치, 생태환경가치, 생활가치가 중층적으로 추구될 때 충족지는 극대화될 수 있다. 그것은 농업의 유지와 발전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수 있으며 농업의 가치가 국민적 규모로 인정될 때 농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농업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특정한 정책으로 제고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보다는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체득되어져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농업의 가치는 추상적이고 생활과 유리된 가치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농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방안은 생활세계 속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 2.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방안

### 2.1. 학교교육을 통한 농업관 형성

교육은 세계관, 인생관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업관의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 교육이 입시위주로 치중되어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황폐되어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내포하는 농업에서 인간교육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농업과 교육을 직접 연결시키는 예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교과서의 내용 속에서 농업을 지식적으로만 학습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교교육 실태이다. 학교교육을 통해서 농업관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① 교육과정에서 환경교육과 농업교육을 직접 연결시켜 농업과 환경과의 관계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사회과 교육에서도 농업의 산업으로서의 위치만이 아니라 농업생산의 특질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지역농업의 차원에서 농산물의 생산과정과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전과정을 생활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외국농산물과의 차별성에 대한 내용도 강조한다.

④ 전체 국민학교에 학교급식을 실시하여 식사시간마다 농업, 농산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들의 입맛을 잃지 않도록 한다.

⑤ 도시학교는 농촌과 자매결연을 맺고 현장 체험학습을 하도록 한다.

⑥ 국민경제 속에서 농업의 역할, 농업과 공업의 차이, 농업과 자연의 관

계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농업철학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은 국민학교 교육만이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수준을 달리하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교육을 받고서도 졸업후 농업에 대해 피상적인 내용밖에 남아있지 않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세계로서 교육이 전개되어야 한다.

## 2.2. 생산자와 소비자의 제휴활동

1990년대에 들어와 안전한 농산물의 구매를 목적으로 소비자들이 조직한 생활협동조합은 농민 생산자와의 제휴하에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거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100여개의 단체가 조직되어 있는 생협활동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대상화하지 않고 공생, 협력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농약, 화학비료 등에 의존하지 않는 농업생산을 추구하고 있다. 가능하면 가격을 저렴하게 공급받고 싶은 것이 소비자의 일반적인 욕구이나 가격보다는 제대로 생산된 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생산지를 발굴하여 농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생협에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환경교육과 아울러 농업교육을 중요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번기에는 농촌현장을 찾아 일손을 돕기도 하고, 농촌에서 자연생태계의 학습기회를 갖기도 한다. 또한 추수기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모여 추수감사제를 지내기도 하면서 협동의 의미를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생협조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활성화된다면 농업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다. 농업에 대한 의식이 이념으로서가 아니라 생활세계 속에서 구체화되고 형상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협동활동에는 주부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좋은 교육효과를 준다. 매일 식탁에 오르는 음식을 대하며 농산물에 관한 화제를 올리고 농업의 귀함을 실감하면서 농업문제를 도시생활 속에서 같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어린이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농산물의 맛을 익히게 하여 우리 음식

문화에 서서히 접하게 할 수 있으며 자연생태계, 환경교육이 아울러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효과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또한 생산자 농민들의 생활을 접함으로써 농민들의 근검, 절약, 정직한 생활로부터 건전하고 밝은 생활태도를 배울 수 있다.

이같은 생협활동이 시인운동의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다수의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업이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문제이기도하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농업에 대한 국민의식 형성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3. 매스컴의 농업에 대한 시각정립과 홍보자세

우리 나라의 많은 도시민들은 신문, TV등의 대중매체를 통하여 농업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 있음이 이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매스컴이 농업을 어떻게 보느냐는 우리 나라 국민의 농업에 대한 의식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체결 이후 매스컴에서는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자는 공통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같은 언론의 영향으로 많은 도시민들이 농업의 국제동향을 인식하게 되었고 농업을 지켜야 한다는 태도를 갖게 되는 데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농업의 가치를 좀더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생태환경가치, 생활가치등의 다면적 가치에 대한 홍보가 더욱 부각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다루고 나아가 농업이 국민들의 생활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를 극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농업관련 기획 프로그램이 보다 많이 계획되어야 한다.

### 2.4. 농촌문화운동을 통한 농업·농촌의 이미지 창조

「농업노동은 고되다」, 「일에 비해 농업소득이 낮다」 등의 농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설령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농업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부정적인 것으로 고정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농업의 장점인 농업노동의 자유로움, 자연과 더불어 노동하는 즐거움,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 오묘함등 농업의 직업적 특성이 아울러 인식되지 않는다면 농업은 사회적으로 열등한 직업으로만 인식되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지위도 함께 낮아질 뿐이다. 이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농촌문화운동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농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의 터전을 문화적으로 가꾸어 나갈 때 농민의 이미지가 고양될 수 있다.

농촌문화운동은 농촌의 전통적인祭를 재현하고 역사유적을 발굴하여 지역자원으로 재구성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문화행사를 주도하는 형태로 전개되어야 한다. 농촌문화에는 도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농촌환경을 정비하고, 관광농업과 연계하여 다채로운 지역문화행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농촌문화 속에는 전통음식, 특산품, 전통음악, 연극제, 마당놀이, 민속춤, 전통공예, 미술, 글쓰기등 다방면의 활동이 포함될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할 것이 요망된다. 또한 자연경관을 조성하는등 지역을 가꾸는 사업이 농촌주민의 참여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5. 농민기념관 설립

국민들이 직업에 대하여 갖게 되는 태도는 각 직업의 주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기업가의 이미지가 있듯이 농업의 주체인 농민들에게도 독자적인 이미지가 있다. 즉 농민들의 개척정신이나 근로, 검약, 협동정신, 창의력, 자립심등 농민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특성들이 농업에 대한 태도를 결정지운다. 따라서 농민정신을 국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의 철학적 가치를 인식시킬 수 있다. 그 방법으로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농민지도자, 그리고 농민들이 발명해

넌 농기구, 농업기술, 농업서적등을 전시하는 자료관이나 「농민전당」과 같은 기념관을 설립하여 농민은 물론 비농민에게도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한다. 농민 기념관은 농민에게 자긍심을 높이고, 농민문화의 구심체로서 일반 국민에게 농업의 문화적 가치를 인식시키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6. 도시민을 위한 농민숙(農民塾) 설립

전원생활을 동경하여 귀농을 원하는 도시민들을 위하여 도시에 농업교육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농촌에서는 영농후계자가 점점 감소되어 가는데 비해 도시민들의 전원생활에 대한 욕구는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더욱 증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도시민들을 위해 농업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시설이 필요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드시 귀농을 하지 않더라도 농업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을 위해서 도시의 농촌지도소나 구청 문화교실과 같은 기관에 농업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도시민의 농업학습에 도움을 주도록 배려하는 것이 요망된다.

한편 도시의 교육장에서는 식생활 교육으로부터 농업의 각종 정보, 농촌 휴양, 노후 농촌생활등에 관한 가이드와 함께 농업의 현대적 의미를 소비자인 도시민에게 교육하도록 한다. 이는 생활 속에서 농업을 친근하게 접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이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젊은 이들이 귀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며, 비농민의 농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교육 후에는 도시 소비자조직의 핵심적인 활동가로 활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의 공생을 지향하는 미래 농업을 생각할 때 도시민의 농업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 제 7 장

###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경제논리만으로 자칫 농업의 중요성이 축소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농업여건 속에서 농업의 본질로부터 농업의 존재가치를 탐구해 보고자 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의 가치문제는 농학관련 학계에서도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문제로서 이는 농업의 중요성이 우리 나라 국민의식 속에서 당연한 것으로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경제 속에서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저하됨에 따라 농업부문은 절대적인 중요도를 상실해 가고 있다. 더욱이 UR로 대표되는 국제화의 파고 속에서 농업은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으로 평가되어 일각에서는 개방불가피를 주장하는 농업축소론이 대두되기까지 하였다.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하에 대대적인 농업투자가 필요하다. 이때 국민적 합의란 이념적이고, 민족적인 폐쇄적인 차원에서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농업의 본질적 가치를 국민들이 체득하는 길만이 지속적인 농업투자를 가능하게 하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농업의 가치를 규명해 보는 작업은 시대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농업의 의미체계를 가치론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였

다. 生의 가치에 바탕을 둔 농업철학의 입장을 기본으로 하면서 농업의 의미를 탐구하고, 공업화사회의 폐해를 극복하는 길이 바로 농업의 논리임을 밝혔다. 그리고 농업의 가치를 구체화함에 있어서는 농업의 역할론으로부터 출발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농업의 가치는 국민들이 농업에 기대하는 사회적 역할인 경제적 역할, 생태환경보전의 역할, 사회문화적 역할로부터 경제가치, 생태환경가치, 생활가치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본질적 가치는 사회의 발전단계에 따라 그 중요도를 달리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경제가치가 최우선이었던 산업화과정에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타산업의 발전을 위한 자본과 노동의 공급, 그리고 공업원료의 공급 등이 농업의 주요 역할이었다. 그러나 후기 산업화 과정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야기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의 생태환경적 역할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 이제 정보화, 다양화, 국제화 시대인 21세기를 앞두고 우리는 농업의 다양성, 안전성, 영속성을 목표로 하는 생활공간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농업에 대해서 부여하고 있는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도와 역할내용을 조사해 보았다. 도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농업의 중요한 역할은 다양한 기능 중에서도 식량공급기능을 비롯한 경제적 역할이 가장 중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장래에는 환경보전적 역할, 사회문화적 역할 등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에 매력을 느끼는 도시민들도 소수이긴 하지만 나타나고 있다. 자유롭고, 자연 친화적인 농촌생활을 동경하는 도시민의 욕구가 증대될수록 농업의 가치는 경제가치만이 아니라 생태환경가치, 생활가치의 측면이 더욱 중시 될 것이다.

한편 도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직업으로서의 농업은 소득, 노동강도 면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농업의 장래성에 대해서도 22.4%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주 현실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볼 때 농업의 역할내용이 구체적으로 부각되지

못하여 그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식되지 않으면 직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속에 농업의 가치가 그대로 매몰되어 농업을 유지 보전해야 한다는 국민의 실천적 의지는 형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업의 역할을 구체화시키는 계획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농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를 부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농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농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체계를 형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초등교육기에 있는 아동들에게 실시하는 학교교육을 검토해 보았다.

국민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초등교육기에 있는 아동들에게 중요한 정보원인 교과서의 내용에서 농업의 언급 비중이 점차로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농업에 대한 기술내용은 농업의 역할이나 영역에 관한 취급빈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내용에 있어서는 산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기술이 많았던 반면, 농업과 생활에 관련되는 부분의 비중이 적었으며, 농촌생활의 좋은 점보다 불편한 점이 강하게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농업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인상지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국민학교 교과서의 농업에 대한 교육내용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에 따른 국제농업 환경의 변화와 앞으로 다가올 그린라운드의 파급효과에 대비하고, 농업에 대한 가치와 신념을 배양하여 미래 농업에 대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교육내용으로는 농업이 지닌 본원적 가치와 역할·기능적 측면에서 농업의 중요함이 조명되도록 하면서 농업에 대한 철학적 사고력을 길러주고 나아가 주곡인 쌀의 우수성, 농업의 역사, 환경과의 관계, 생명과의 관계, 식량문제 등에 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농업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특정한 정책으로 제고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농업의 가치가 체득되어질 수 있는 체험의 장과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농업의 가치는 추상적이고 생활과 유리된 가치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농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방안 역시 생활세계 속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생활세계 속에서 농업의 가치를 구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민들의 참여를 통한 의사소통 방법을 채용하였다. 학교교육, 생산자와 소비자의 제휴 활동, 매스컴의 농업에 대한 시각정립과 홍보내용 개발, 농촌문화운동을 통한 농업·농촌의 이미지 창조, 농민기념관 설립, 도시민을 위한 농민숙(農民塾) 설립등을 통하여 농업이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제 우리가 추구할 농업·농촌의 전개방향은 농업의 경제가치, 생태환경가치, 생활가치가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종합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生을 제약하지 않는 총체적인 가치가 실현될 때 우리사회의 총복지(總福祉)도 증대될 수 있으며, 국민들이 그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농업의 장(場)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이다.

빈

면

## 부록 1 우리 나라 농업관

빈 면

## 부록 1 우리 나라 농업관

농업관은 농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철학의 범주인 인식론, 가치론, 존재론에 적용시켜 볼 때 농의 역할론과 농의 가치론, 농의 의미론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근래에 자주 거론되고 있는 농업의 역할기능에 관한 논의는 농의 역할론에 포함될 것이며, 농의 가치론은 농의 역할에 대한 가치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농의 존재론은 농의 존재의미에 대한 해석, 또는 인식으로 볼 수 있다.

농의 역할이나 가치와는 달리 농의 존재론은 직접 생활세계 속에서 체득한 농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입장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농업관을 살펴봄으로써 농업의 가치를 구체화시켜 보고자 한다.

### 1.1. 인간주의 세계관에 의한 농업관

농에 대한 해석은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농민)들의 생활세계 속에서 찾아야 하고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목적과 이상을 세워서 자신의 생활을 주재해 가는 데 필요한 세계관과 관련이 있다. 단지 농의 의미는 농민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도 관련되므로 세계관의 일반화된 구조 속에서 농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세계관의 구조 속에서 농의 의미를 찾는 경우 그때의 세계관은 자연과학주의적 세계관이 아닌 인간주의적 세계관으로 철학적 인간학을 바탕으로 하여 현상학적 의미세계 즉 생활세계에 바탕한 명증적인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접근으로 우리 나라 농업관을 분석한 연구내용(김영생, 1993)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분석은 우리 나라의 농민교육과 농의 가치와 철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와 서울대학교의 류달영 박사의 글을 토대로 하고, 그 밖에 농의 인간주의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문헌을 분석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내용분석의 범주는 인간주의적 세계관에 의한 농의 의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농의 영역으로서 농을 주도하는 주체, 농의 환경, 농의 결실물로 나누고, 또 하나의 범주로서는 세계관의 구조를 적용시키고 있다.

이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를 각 영역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 1.1.1. 자연의 본질에 관한 영역

농은 자연생명의 모든 순환계를 조화시키며, 전생명의 유기 순환적 관계를 유지하여 공존공생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업위기는 인류전체의 위기, 더 크게는 생태계의 위기이다.

#### 1.1.2. 인간의 본질적 의미영역

① 농업은 인간에게 가장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개방되었으며 양심과 진실함과 인정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직업이다. 그러므로 어느 직업보다 떳떳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농업을 통해 인간은 자연을 느끼고 배움을 통하여 진실과 근면 등의 도덕을 배우는 것이 다른 이익보다 더욱 중요한 소득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농업은 식량이나 제품의 원료인 물질의 생산보다 더욱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③ 농촌은 도시를 뒷받침하는 뿌리이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비도덕과 퇴폐와 개인적인 이기주의를 극복할 책임과 가능성이 농민, 농촌에게 있다. 농촌이 도시의 뿌리라는 의미는 단순히 식량이 인간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건전한 문화를 전통속에서 지키며 발전시키는 문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건전하고 발전적인 문화를 생산하고 퇴폐적이고 부정적인 경향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은 농촌에서 찾아

야 할 것이다.

④ 건전한 노동의 신선함을 가지고 있는 농업, 농사는 올바른 인성을 유지시켜 주는 버팀목이다. 이러한 인성을 지켜주는 농업이 의미를 상실하면 인성의 위기가 온다는 것이다. 건전한 노동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이루는 협동작업은 인간에게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⑤ 농업과 농민문화는 인류 모든 문화의 근본이라는 것이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면서 인류문명이 시작되었고 또한 인류의 발전이 시작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인류문명의 기초로서 농의 기능은 아직도 그 전통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문화의 근원적인 모습은 농과 어떤 방식으로든지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인류문명의 근본적인 형태를 이끌고 발전시키는 농업은 인간에게 있어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1.1.3. 인간과 자연의 관계의 영역

①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천연적인 자원을 이용하여 인간이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농업이다. 자연의 일부인 농의 대상을 약탈하거나 무조건적인 이용이 있을 수 없다. 인간이 자연을 아껴주고 돌보아 주면 자연도 인간을 아껴주고 보호하는 상호공존을 이루는 방법이 농업이다.

② 사람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에서 예술을 탄생시켰다. 가장 기본적인 예술정신은 흙을 사랑하는 정신과 일맥 상통한다. 사람이 아름다움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은 자연을 감상하고 느끼는 것이며,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의 표현을 예술적으로 나타낸 것이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1.1.4. 인간과 사회간의 관계의미 영역

① 올바른 인간관계의 모습은 농업을 택하여 함께 일하는 것에서 평등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보기를 농업을 통해서 실현해 볼 수 있다.

② 농업을 통해 인간관계가 투쟁적이지 않고 조화와 협동을 이루는 삶을 이루게 한다. 다른 산업은 인간을 부자연스럽고 억압하는 환경을 조성하지만 농업은 인간의 본성을 자유롭게 이룩할 수 있게 한다.

③ 농업을 경시할 때에 그 사회는 발전하지 못한다. 농업을 하는 농민과 그 터전인 농촌이 발전할 때 국가전체와 사회도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농촌은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진 곳이다. 도시의 공해와 공간 부족과 교통문제 등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촌에 있다. 그러므로 미래를 대비하여 농업을 모든 산업의 바탕으로서 발전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산업과 국가의 안보마저도 위협을 받게 된다.

④ 농민은 나라의 주인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주인은 단기적인 이익에만 치중하지 않고 전체를 위해 희생을 하고 있다. 농민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지 않고 전체 국가적인 의무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익을 얻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전체 국가와 국민을 살리고 유지시키기 위한 주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전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을 하는 농민은 이 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다.

### 1.1.5.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의미영역

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인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자연과 유리된 인간사회는 쇠망하나 자연과 조화와 협동을 이루면 발전하고 그 미래가 밝다. 그러므로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농업은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사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띄고 있는 국가, 사회는 반드시 농업을 중시하고 그 중심으로서 농업을 발전시켰다. 그러므로 농업의 발전은 국가나 사회의 이상적인 발전과 안정에 필수적인 것이다.

## 1.2. 신토불이의 농업관

1990년 이후 한국 농협의 표어가 된 身土不二는 이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켜 주는 표어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신토불이의 정확한 의미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우리 농산물이 우리 몸에 좋다는 정도로 널리 인식이 되고 있다. 신토불이는 외국농산물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농산물을 애용하는 차원에서 씌어지고 있으나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현대적 농업관의 하나로 자리매김을 해보고자 한다. 이하 신토불이의 의미에 대하여 철학적으로 고찰한 문헌(이 을호, 1993)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이 을호는 그의 저서에서 신토불이는 전 인류의 생명을 지켜주는 원리로 승화되고 나아가서 생명의 시원을 밝혀주는 원리로까지 비약해서 이해해야 할 원리로 보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身과 土 그리고 不二로 이루어진 이 말의 의미를 보면 먼저 身이란 하나의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대기를 호흡하며, 음식을 소화하고 나아가서는 만사를 사고하는 무형의 기능이 하나로 조화된 생명체이다. 그러므로 身이란 신체라는 생물학적 개체인 동시에 소우주라는 철학적 존재이기도 하다. 이 생명체를 움직이는 힘, 즉 生氣는 土에서 솟아나는 것으로 본다.

흙으로 상징되는 土의 개념은 첫째 토지, 둘째 향토, 셋째 국토, 넷째 지구, 곧 자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土의 궁극적인 개념은 바로 자연이다.

따라서 不二란 身과 土가 하나의 생명체임을 의미한다. 즉 인간과 자연 환경이 하나로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의 생명은 다른 동식물과 달리 생물학적 생명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영적 생명체로 승화하여 인간의 육체 안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 따라서 다른 생물과는 달리 문화적 생명을 간직하고 있다. 여기서 문화적이라 함은 철학, 종교, 윤리, 예술등을 총체적으로 종합한 개념이다. 인간은 독자적인 문화의 역사적 전통 속에서 생존하고 있는 것이다. 생물학적 생명이 자연환경에 적응하듯 문화적 생명은 독자적 전통문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보면 신토불이의 身은 생물학적 육체만이 아니라 심성론적 신체, 나아가서는 문화사적 전통을 간직한 한 인간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지로서의 土의 개념은 자연환경으로서의 지구를 가리킨다. 문화적 총체로서의 身과 거대한 생명체로서의 지구(가이어) 즉 土는 둘이 아니라 하나로 파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토불이의 요체이다.

우리나라에서 신토불이의 생명운동의 선각자로서는 擇里志를 지은 李 重煥을 들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신토불이의 섭리는 조국산천을 가꾸자는 생명운동이다. 그는 택리지를 통해서 첫째, 국토가 삶의 터전이라는 자각을 하였으며, 둘째, 자활의 능력과 지역 생산성을 결부하여 국토의 활성화를 꾀했다. 세째로 그는 국토의 생산성 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 사이의 유통구조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의 삶과 국토의 자연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국토를 순례하였고 이를 체계화하여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택리지에서 강조하는 세계는 바로 농업의 세계이다. 그의 경제관은 인간의 생산활동을 중시하며 결국 인간은 그들 스스로를 위한 생산활동에 의해서 의식을 해결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리적 환경을 가장 잘 이용하여야 된다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지론이요 사상이었다. 가장 좋은 지리적 환경이란 땅이 기름진 곳이 제일이고, 배·수레와 사람 및 물자가 모여들어서 필요한 것을 서로 바꿀 수 있는 곳이 그 다음이라는 것이다. 또한 상업적 농업을 중시하여 상업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도시의 발전과 교역의 증대를 가져온다고 하여 물화의 운반수단에 대해 개선을 주장하기도 하여 근대적인 농업의 발전형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택리지의 신토불이가 우리나라 전국의 특산품에 대한 인식을 높여 주었다고 한다면 신토불이의 세계는 우리의 전통문화에서 그대로 살아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의 전통음식, 전통음악인 농악, 전통가옥, 전통의상, 토산품 등은 모두 農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들이다.

우리 전통음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이 있다.

첫째, 썩인 재료가 모두 그들이 살고 있는 집안의 울타리 안이거나 들판

이거나 아니면 뒷산 마루턱에서 또는 논밭에서 가꾸어 놓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음식은 서민들의 밥상에서 살아있다.

둘째, 채식주의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셋째, 계절감각이 뛰어나다.

셋째, 모든 재료가 조화되어 감칠맛 나는 하나의 맛을 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신도불이의 섭리는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의·식·주의 생활양식 속에 감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삶의 양식은 전통문화로서 농촌에 뿌리를 둔 것이다.

끝으로 신도불이는 생명의 환경학이다. 생명이란 과일처럼 한 개로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봄·여름·가을·겨울의 변화처럼 새로운 환경,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生), 장(長), 염(斂), 장(藏)을 거듭하는 삶 그 자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환경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환경 자체가 곧 생명자체요, 생명은 곧 환경표현이다.

이렇게 볼 때 국토가 황폐해지고 외래 수입농산물이 거침없이 밀어닥치는 현실에서 우리의 자생력을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손으로 우리 땅을 살리는 농법으로 전환하고 수입농산물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토양 파괴는 생명의 파괴요, 대기의 정화는 바로 생명력의 정화이다. 신도불이의 섭리는 곧 생명력 회복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신도불이의 원리는 바로 농의 원리이며 생명의 원리이다. 이는 한 개인의 생명을 가꾸는 섭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사랑의 길로 통한다.

「사람과 자연은 하나다」의 저자는 “산과 들에 그득그득 쌓여 있는 불로 초를 가꾸자. 에덴동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농촌이 바로 낙원임을 알아야 한다” 고 맺고 있다.

빈

면

## 부록 2 일본의 농업관

빈

면

## 부록 2 일본의 농업관

일본사회의 기본구조는 농촌의 무라(村 : 우리나라의 농촌마을 개념에 유사함) 사회로부터 출발하였다고 할만큼 농촌에 뿌리를 둔 국가이다. 근면, 절약의 국민성도 농민의 생활속에서 비롯되고 있음이 많은 문헌에서 지적된 바 있다. 또한 농업이 천하에서 가장 으뜸이라는 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업의 중요도를 말해주는 어귀로 씌어진다.

이와같이 농업을 기본적으로 중시해 온 일본은 공업화에 의해 경제대국을 이루게 됨에 따라 국제사회로부터 국제수지균형에 대한 강한 요구를 받게 되었다.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농업을 종전의 형태로는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의 축소를 우려하는 입장에서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묻는 작업이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부록2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여건과 유사한 현대 일본 사회가 농업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봄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의 농업관 형성에 참고하고자 한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의 가치를 다면적 역할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고 볼 때 일본에서는 농업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하여 절대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량자급도가 65%인 일본은 많은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후까지 자급하고자 했던 쌀도 수입개방의 길로 들어섰다.

따라서 농업의 가치는 산업적 가치보다는 환경가치, 생활가치의 면을 부각시키고 있는 인상이다. 식품의 안전성이나 맛과 같은 품질면을 중시하여 외국 농산물보다 우수한 국내 농산물의 가치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농업생산의 질적인 면에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인식을 바탕으로 농업을 환경문제에 직결시켜 농업이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사회분위기는 경제수준이 높은 선진국의 공통된 추세라고 할 수 있으나, 일본의 경우 소비자들로부터 시작된 유기농산물 공동구매운동이 일반국민들의 생활속에 농업을 포함시키면서 농업문제를 소비자들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데 큰 동기가 되었다.

## 2.1. 유기농업운동

일본은 1960년대부터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되었으나 그 결과로 1970년대 이후 많은 공해문제가 발생하였다. 공해가 사회문제로 확대되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아울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소비자들 스스로가 농산물생산에 대한 학습을 하고 농촌을 찾아가 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을 생산해 주기를 요청하는 형태로 농업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력하는 과정을 경험한 일본의 소비자들은 농업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농민의 고충을 나누는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움직임은 일본 국민전체의 의식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전국 각지에서 전개해 온 많은 운동단체들의 20여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도 상당히 파급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UR이후 일본농업을 지키기 위한 소비자단체들의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된 것도 소비자들로부터 비롯된 유기농업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유기농업운동을 비롯한 소비자운동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농민과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유기농업 생산자들의 주체적인 삶, 자연과 더불어 하는 삶의 방식에 매력을 느끼고, 농업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되었다.

농업과 비농업,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중요시하면서 생활속에서 농업의 가치를 찾고 있는 일본인들은 학교교육에서, 그리고 사회활동의 체험에서

농업을 대상화하지 않고 공생해야 하는 존재로서 인식을 키우고 있다.

일본사회도 물론 국민들의 농업관은 동일하지 않으며 계층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입장(예를 들면 기업, 매스컴, 농민, 정책 등)에서는 어느 사회보다는 더욱 첨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분위기의 특징중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농업의 가치가 생활속에서 추구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생활속에서 농업이 매우 의미있고, 소중하며 매력이 있는 경제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의 현장, 시민운동의 현장에서 구체적이고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치인식의 과정에서 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 2.2. 농(農)의 교육력

농업의 사회문화적 역할로서 일본인들은 농업이 갖는 인격형성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현대의 시민사회의 기본모델의 근저를 이루는 자유·평등·박애정신이야말로 농업을 통해서 형성되고, 길러진 근대사상이라는 논의와 아울러 일본의 위대한 농민상으로서 安藤昌益의 사상, 二宮金次郎의 사상을 널리 연구하고 교육의 자료로 삼고 있다. 특히 二宮金次郎의 일화는 소학교 국정교과서에 빈번히 수록되어 일본 국민에게 농업을 통하여 근검, 절약, 효행, 향학등의 윤리의식을 심어 줌으로써 농업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의식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일본인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은 다방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교육분야에서는 자연관찰을 바탕으로 하는 생산실천을 통해서 농민이 주체적으로 자연과 관련되는 것에 교육적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의 교육적 역할(사회적 의의)에 대한 양케이트 조사결과에서 농업이 없는 사회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응답을 보면 식량생산이 부족하고 자연과의 접촉이 결핍되어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어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농업이 없는 사회는 무미건조하며 감동이 없고, 균형감각을 잃은 정신파괴의 분위기를 갖는다고 하여 농업이 없는 사

회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농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서 인간도 자연의 일원으로서 공생한다는 인식, 대자연 속에 숨겨있는 질서, 섭리에의 외경, 자연의 섭리, 혜택을 체득, 생물, 생명의 존귀함을 알고 자연에 친화된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농작업을 통해서 살아있는 것을 키우므로 인내심과 노력, 참고 기다리는 마음등을 배울 수 있다고 하였으며, 농촌생활을 통해서 이웃사람들과 협력, 협동, 협조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또한 인정미 넘치는 운택있고 넉넉한 생활태도를 배울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반드시 현대의 농업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일본인들의 농업에 대한 가치인식을 대체로 알 수 있게 하는 자료이다(七戶長生, 1990).

이하에서는 농업의 교육력과 관련하여 서두에서 언급한 二宮金次郎의 농업철학의 내용과 현대적 의의를 살펴 보기로 한다.

일본 소학교 교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상의 주인공 二宮金次郎는 1787년에 小田原 북방의 평야지대에서 소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봉건적 압제하에서도 묵묵히 勤儉力行하면서 압제를 비판, 시정하였던 인물이다.

二宮金次郎가 교과서에 실리게 된 1904년 당시 일본은 이제 막 근대적 공업화가 시작되는 농업국이었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새로 학제를 편성하여 면학을 장려하려 했던 대상으로는 농가의 자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소년시대의 金次郎야말로 농촌 소년들의 우상으로 선택되기에 적합하였던 것이다. 二宮金次郎는 일반 평민인 농부의 아들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농가 자녀들에게 근검하게 열심히 공부하면 훌륭하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에 족하리라는 당시 국정교과서 편찬위원의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유교적 덕목 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당시 일본의 국가적인 테마이었기 때문에 金次郎는 효행, 근면, 자영, 검약의 대표적인 실천자로서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다.

金次郎 이야기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 조실부모하였으나 「積小爲大」를

체득, 혼자 힘으로 황무지를 개간, 집안을 일으키고 봉건 영주의 무리한 조세를 경감토록 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구하는 한편 농민들에게는 勤儉力行토록 하였다는 내용이다. 金次郎은 농사일을 하면서도 26세부터는 공부를 하기 시작하여 이후 尊德이라는 칭호를 얻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金次郎 이야기는 첫째 작은 것이라도 쌓이면 크게 된다는 자연의 섭리에 눈을 뜨게 되어 이를 실천했다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으며 둘째로 영주의 연공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요구하여 일체의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봉건 압제를 비판하면서 구체적으로 요구하여 도리와 실적으로 「농의 철학」을 체계화시켰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세째로는 어려서부터 농사일을 하면서 자연관찰을 통해 체득한 농의 철학으로서 「天道와 人道」를 들 수 있다.

그는 춘하추동 사시사철을 자연의 작은 변화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면밀한 관찰을 거듭하는 가운데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되어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법칙은 동일하지 않다는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그는 인간은 자연의 법칙이 논발을 황폐화 시키는 것에 대항하여 이를 방지하고 가꾸어 나가는 영위(人道)를 다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자연과 인간의 상대관을 더욱 확대하여 상대와의 대립을 지성으로 풀어 나가면 결국 융합된다는 변증법적 상대관으로 발전시켰다. 이와같은 사상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서구의 계몽사상 중 「자연질서」와도 일맥 상통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金次郎 이야기는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 한계를 갖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즉, 金次郎의 구체대상은 모두 생활은 물론이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수준의 곤궁에 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현실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의 가치관의 근저에는 의식주를 증식시키는 것만이 선이고 그것을 손상시키는 것은 악으로 정하고 있어서 생활문화의 창조를 즐기는 밝은 기운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대 일본사회에서 볼 때는 많은 선행을 쌓고 사람들을 구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는 있어도 동경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그의 농의 철학이 의외로 협소하게 되었다는 아쉬움을 표시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근대화 초기의 일본인에게 농의 철학을 심어 주고, 희망을 갖게 하는 농민상의 모델이었음에는 틀림없다.

### 부록 3 미국의 농업관

빈

면

## 부록 3 미국의 농업관

### 3.1. 미국의 농업관 생성배경

미국의 독립혁명은 농민의 붕기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일컬어질 정도로 초기 국가확립기에 농업의 역할이 지대하였다. 식민지 법률의 불합리성과 지사, 지주의 권력남용, 그리고 영국의 세금부과와 세금 강제징수에 대한 농민의 반항이 미국의 혁명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이은웅, 1988).

혁명 당시 미국농민은 자본가를 돕는 해밀턴 당보다는 제퍼슨 당을 도와 1800년의 선거에서 큰 지지를 보냈다. 이후 제퍼슨은 정당이념을 농업의 가치실현에 두었고, 이는 미국농업정책의 근간이 되는 이념으로 이어져 왔다.

제퍼슨 정당의 이념이 되었던 농민주주의의 강령은 농업내부의 차원을 벗어나 미국민의 직업윤리, 민주주의, 기업주의, 자기완결주의 등의 사회이념으로 확대발전하였다. 농민주의 강령은 농업의 가치를 농민의 독특한 생활양식에서 추구하고 있으며,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한편 1860년까지의 미국 농민운동은 법률에 의한 권한, 자유의 보장을 가져왔으며, 농업문학과 과학을 촉진하였다. 또한 농업문제가 사회전반, 그리고 정치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주었고, 농업교육을 장려하였으며 토지매매의 독점 내지 투기가 없도록 하는 각종 제도를 마련하였다.

미국농업은 자급자족 농업으로부터 상업적이고 공업화되기 시작하여 효율성을 중요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다량의 잉여농산물을 남게 되었다. 많은 농민들이 농업으로부터 공업으로 이동하였고 농업은 가족농의 생계농업

이 아닌 산업으로서의 농업으로 성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산업적 농업 생산의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1900년까지 기간중에는 여러 형태의 농민기구가 설립되고, 협동조합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정당이 출현하여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재정부담으로부터 구제받고자 하였다. 이 당시 나타난 농민운동은 단순히 토지에만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자유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상의 초기 미국역사와 함께 형성된 농민주의는 미국민의 사회적 가치관에 크게 영향을 주었고 이후 미국민의 농업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다.

### 3.2. 미국의 농업에 대한 가치부여

제퍼슨의 농업이념이 강조된 이래 미국민들은 농업에 대하여 특별한 가치를 부여해 왔다. 당시의 농업의 가치에 대한 신념은 가족농주의, 농본주의, 자영주의 등 구체적인 생활양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치로 하고 있다.

1. 농민은 선량한 시민이며 국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2. 농업은 사업일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3. 농업은 가족농으로 영위되어야 한다.
4. 토지는 경작자가 소유해야 한다.
5. 경작지는 이모작을 하는 것이 좋다.
6. 농업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
7. 농민은 스스로 경영인이 되어야 한다.

그밖에도 많은 사회학자들은 농업에 대한 가치체계와 미국민의 가치체계 사이에는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생산이 기계화되고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가족농의 규모는 확대되고, 경영전문가가 등장하여 농장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예가 많아지게 되었다. 미국 농업이 효율중시의 생산력 주의로 발전하면서 초기 농본주의 이념과는 다른 현실이 전개된 것이다. 가족농주의 역시 농업의

이념으로는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사회의 가치체계 속에서 이미 가족농의 이미지가 농업의 이미지로 형성화되어 있어서 현대 미국인에게 있어서는 농업에 대한 향수어린 농업단위로서 인식이 되어 있다.

또한 농민의 기질을 설명하는 근면, 절약, 정직, 자기완결 등의 직업윤리와 관련되는 품성에 대해서도 농업이 아닌 여타의 직업에서도 그러한 성향은 나타날 수 있음이 지적되기도 한다. 이것은 농업생산 양태의 변화에 따라 미국민의 농업에 대한 이미지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최근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함께 농업의 자연주의적 가치, 가족농의 가치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통념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미국농업의 가치체계가 농업생산 방식에 따라서 농민이 가지는 농업관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이 조사결과를 통해서 지적되고 있다. 농업의 가치체계를 농본주의, 농업 자연주의, 가족농주의, 경제주의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 이 연구에서는 농본주의, 경제주의에 대해서는 관행농법 생산자들이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자연주의, 가족농주의에 대해서는 대체농법 생산자들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Curtis E. Bens and Riley E. Dunlop, 1994).

현재 미국에는 환경문제와 결부시켜 토양을 보전하고 지하수 오염을 막는 농업의 가장 적합한 영농규모로서 가족농의 존재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사회집단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가족농의 생활양식에 대하여 현대의 미국인들은 동조를 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농을 중시하는 미국민들이 농업에 부여하는 가치관은 미국역사의 초창기에 강조되었던 농민주의의 내용 중에서도 농본주의의 경제적인 측면이나 직업적인 측면보다는 환경가치, 생활가치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현금소득원으로서의 농업보다는 생활방식(Life Style)으로서 농업을 더 평가한다거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돌아가야 한다거나 현대의 범죄와 부패가 만연하는 원인이 도시화에서 비롯된 결과라든가, 가족농을 기업의 형태로 바꾸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농민주의 관련조사 문항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반영되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미국농업 정책에 가족농을 지원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1990년 농업법은 환경보전에 비중을 두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해 가는 정책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가족농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채택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농업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의 내용이 농업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가치, 즉 존재가치를 사회가 높이 평가하는 전통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자연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농업의 특수성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고범서, 「가치관 연구」, 나남, 1992.
- 고혜련, 「자연에 산다」, 나남출판, 1994.
- 김동수의, 「논 왜 지켜야 하는가」, 따님, 1994.
- 김동일, 「한국 농촌주민의 삶의 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총서, 1980.
- 김동희외, 「국제화시대의 농업정책」, 단국대 협동문화경제연구소, 1994.
- 김성훈외 15인, 「한국농업 이 길로 가야한다」, 比奉出版社, 1991.
- 김성훈외, 「쌀 어떻게 지킬 것인가」, 농민신문사, 1992.
- 김성훈, 「농림업의 본질적 가치와 그 재평가」, 「농업의 재발견」, 한국농업경제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1994.
- 김영생, 「인간주의 세계관에 의한 농의 의미와 교육 이념 탐구」, 서울대학교 교육학 석사논문, 1993.
- 김영원, 「효선리농부의 세상사는 이야기」, 종로서적, 1994.
-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규장, 1968.
- 김용호, 「신문에 비친 오늘의 國民意識構造」, 一志社, 1982.
- 대륙연구소, 「우리 나라 농업 및 농촌에 대한 도시민 의식에 관한 연구」,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연구원, 1991.
- 박도순, 「教育研究方法論」, 文音社, 1993.
- 사회과학연구소, 「사회와 인식」, 민음사, 1984.
- 사회과학연구소, 「가치의식의 변화와 전망」, 서울대 출판부, 1986.
- 성진근, 「농의 가치와 역할」, 을유문화사, 1992.
- 에머리히 코레트, 「解釋學」, 신귀현역 종로서적출판사, 1993.
- 에머리히 코레트, 「哲學的 人間學」, 진교훈역 종로서적, 1993.
- 윌리엄 오드웨이트, 「사회적 삶의 이해」, 김동일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6.
- 이병철, 「밥의 위기 생명의 위기」, 종로서적, 1994.
- 이은웅역, 「농업철학서설」, J.D.힐/W.E.스튜어맨저, 향문사, 1988.
- 이을호, 「사람과 자연은 하나다」, 지식산업사, 1993.
- 이정환외, 「경제사회 발전과 농림수산업의 역할 변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

- 고 23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1.
- 이춘녕, 「한국 農學史」, 민음사, 1989.
- 임병운, 「한국인의 농업관」, 도서출판 홍진, 1993.
- 장권열, 「농업철학」, 향문사, 1988.
- 천규석, 「이 땅덩이와 밥상」, 창작과 비평사, 1993.
- 최양부, 「문명의 전환과 우리農의 전망」 「바른 농업의 대안은 무엇인가」, 한살림 농업정책토론회, 199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韓國産業社會의 構造와 價値觀의 諸問題」, 1992.
- 한국현상학회, 「생활세계의 현상학과 해석학」, 서광사, 1992.
- 한상섭, 「山林의 공익적 기능 유지 증진방안」, 「21세기를 바라보는 한국 임정 발전 심포지움」, 임업연구원, 1989.
- 홍승직,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1969.
- 홍윤기, 「하버마스의 이론과 실천」, 종로서적, 1994.
- 岡崎正英, 「農のこころ」, 家の光協會, 1975.
- 高山隆子, 「80年代の西獨農政の基調」, 「農業總合研究」 제42권 제4호, 農業總合研究所, 1989.
- 古澤廣裕, 「共生時代の食と農」, 1990.
- 菅原友太, 「農林業が地球を救うこれだけの理由」, 農山漁村文化協會, 1993.
- 宮出秀雄, 「農業に未來があるか」, 富民協會, 1973.
- 根井康之, 「市場原理と生活原理」, 農文協, 1989.
- 今村奈良臣, 「政府と農民」, 農山漁村文化協會, 1991.
- 內山節, 「自然・勞動・協同社會の理論」, 人間新書, 1989.
- 多邊田政弘, 「地域自給と農の原理」, 學陽書房, 1987.
- 大內力, 「農業の基本的價値」, 家の光協會, 1990.
- 飯沼二郎, 「農業は再建できる」, ダイヤモンド社, 1990.
- 柏祐賢, 「農學原論」, 養賢堂, 1962.
- 小倉武一, 「農政の社會學的 接近」, 農山漁村文化協會, 1981.
- 守田志郎, 「農業にとって進歩とは」, 1987.
- 勝原文夫, 「農の美學」, 論創社, 1979.
- 野口 吉, 「農學概論」, 鄭 容權 역, 부민문화사, 1989.
- 永田恵十郎, 「地域資源の國民的利用」, 農山漁村文化協會, 1981.

- 玉野井芳郎,「生命界の經濟を向けて」,學陽書房,1990.
- 玉野井芳郎,坂本慶一,「いのちと農の論理」,學陽書房,1985.
- 鳥越皓之,「環境問題の社會理論」,1989.
- 祖田修外,「現代日本の農業觀」,富民協會,1994.
- 助川信彦,「環境問題と自治體」,刀水書房,1991.
- 佐藤慶幸,「生活世界と對話の理論」,文眞堂,1991.
- 竹中久二雄,「農を生命の産業として考える」,學陽書房,1990.
- 陣内義人,「人間と自然の生産力」,農山漁村文化協會,1989.
- 七戸長生,「農業の教育力」,食糧農業問題全集8,農漁村文化協會,1990.
- 坂本慶一,「高度産業社會の論理と農業」,近代農學論集,1971.
- 坂本慶一,「農學における價值の問題」,農林業問題研究 第64號,1981.
- 坂本慶一,「近代フランスの農業思想」,世界書院,1987.
- 坂本慶一,「人間にとって農業とは」,學陽書房,1989.
- 坂本進一郎外,“文明としての農業”,「窓」,17號,1993.
- Curtis E. Bens and Riley E. Dunlop, “Endorsement of Agrarian Ideology and Adherence to Agricultural Paradigms”, *Rural Sociology*, 59-3, 1994.
- Herman E. Daly and John B. Cobb, Jr., *For the Common Good*, Beacon Press, 1989.
- John M. Brewster, “Society Values and Goals in Respect to Agriculture”, *Goals and Values in Agricultural Policy*,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62.
- Johnson D. Hill, Walter E. Stuermann, *Roots in the Soil*, Philosophical Library, N.Y., 1963.
- Joseph J. Molnar and Litchi S. Wu, “Agrarianism, Family Farming, and Support for State Intervention in Agriculture”, *Rural Sociology*, 54-2, 1989.
- Luther Tweeten, *Foundations of Farm Policy*, University of Nebraska, 1970.
- Marty Strange, *Family Farming*, University Nebraska Press, 1988.
- Michael G. Dzileki and C. Milton Coubhenour, “Agrarianism in American Society”, *Rural Sociology*, 57-1, 1992.

빈

면

연구보고 R303

## 농업에 대한 국민의식과 사회적 인식 제고방안

---

찍은날 1994. 12      펴낸날 1994. 12

발행인 정 영 일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962-7311~5)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은곳 (주) 범 신 사 720-9786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